

THE SUPREME MASTE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69호

◆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신을 아는 데서 얻는 자유이다

◆ 스승님 말씀

명실상부한 성인이 되라

◆ 황금시대의 새로운 비전

스승님의 영적 알파벳

◆ 동물의 감성 세계

사랑의 집에 더불어 사는
개와 고양이 친구

◆ 스승님의 시와 예술 세계 감상

불멸의 시를 통해 드러난 일대기

◆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인도네시아 재난 속에
국제적 형제애의 정신이 형성되다



명실상부한 성인이 되라

청하이 무상사/ 2005. 2. 24. 헝가리 유럽 선행사 (원문 영어)

여러분이 아주 친절할 것은 나에게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난 아무것도 죽이지 못해.', '난 고기를 안 먹으니까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건 다 배운 겁니다. 배우지 않았다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인다워지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지요. 여러분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사랑이 많고 더욱 사려 깊고 똑똑해야 하며 남에게 도움이 되고 솔선수범하고 친절하고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특히 무아의 사랑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대중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불우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성인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다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십시오. 이것 또한 일종의 명상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때조차 그렇게 합니다. 낮에 눈에 띄는 일들을 바쁘게 처리하고 밤이 되면 밖에 있는 새들을 생각하면서 이 추운 밤에 너무 춥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여우와 개, 양, 또는 산속의 염소들도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 나는 그곳의 모든 존재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충분히 따뜻하고 편안할지 걱정합니다. 아주 자연스레 그렇게 되지요.

그러므로 친절할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친절과 자비,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품성들이 여러분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사랑 이외엔 그 무엇도 아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짜 성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름만 성인이거나 성인의 감투만 쓴 거겠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박사가 되기 위해 수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지만 그냥 명예 박사 학위만 얻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예 학위를 얻었든, 가짜 학위를 땀든, 돈을 주고 학위를 샀든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가 되십시오! 이미 학위까지 있는데 진짜 박사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진짜 박사가 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은 애초에 명예 박사 학위를 얻긴 했어도 노력하면 진짜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박사가 되거나 식견이 풍부 한 박사가 될 수 있지요. 조금 더 공부하면 결국엔 똑같이 따라잡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성인의 직함을 받았습시다. 그러니 진짜 성인이 되십시오! 직함에 어울리는 진짜가 되세요!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시키고 성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으로써 성인의 길을 따르십시오. 언제나 그런 방향으로 향하도록 노력하세요. 자신을 이런 분위기, 이런 성인의 범주에 속하도록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보다 훌륭한 성인이 될 것입니다! ☆



CONTENTS

차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69호

출판일자 : 황금시대 3년(2006년) 9월 23일

설립년도 : 1990년 4월 1일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인터넷 상에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아올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 2 스승님 말씀
명실상부한 성인이 되라
- 4 다채로운 이벤트
독일/ 코스타리카/ 포모사/ 몽골
- 12 장작 수행 가곡
우리는 신의 아이들
- 13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단체명상의 큰 힘
- 14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신을 아는 데서 얻는 자유이다
- 18 전세계 우주 정책 시리즈
핀란드/ 미국/ 유럽연합
- 21 황금시대의 과학기술
가장 깨끗하고 저렴하며 친환경적인 정수 시스템
- 22 황금시대의 새로운 비전
스승님의 영적 알파벳
- 23 수행 수상록
영적 알파벳을 통해 새로 눈뜨는 세상
- 24 골라 뽑은 수행 문답
인생의 도전에 절대적인 해답이란 없다/ 집중은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나머지는 신께 맡겨라/ 신실함과 집중력이 단체명상의 효과를 결정한다/ 수행의 길에 놓인 업장을 극복하라
- 27 시
스승님, 나의 성모님
- 28 사제지간의 팬시
스승님께 드리는 금붕어의 메시지
- 29/ 71 스승님의 농담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부전자전
- 30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스위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벨로루시/ 네덜란드/ 레소토와 짐바브웨/ 토고/ 캐나다/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어울락/ 태국/ 라오스/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네팔/ 대한민국/ 대안적인 삶 티셔츠, 손가방, 모자
- 65 관음 웹사이트
- 67 동물의 감성 세계
사랑의 집에 더불어 사는 개와 고양이 친구
- 69 행복한 동물 낙원
개들에게도 행복한 채식을 시키자
- 70 채식 시대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 72 사랑의 실천
일본/ 태국/ 대한민국/ 케냐/ 미국/ 포모사/ 인도네시아
- 89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인도네시아 재난 속에 국제적 형제애의 정신이 형성되다
- 91 전세계 연락처
- 95 스승님의 시와 예술 세계 감상
불멸의 시를 통해 드러난 일대기
- 99 영혼의 고양
심오한 시구에 담긴 성자(聖者) 시인의 광대무변한 마음
-칭하이 무상사 최신 개정판 시집
- 100 스승님의 최신 그림

독일 소식

뮌헨에 나타난 신의 사랑

원 사저/ 독일 뮌헨 (원문 독일어)

[뮌헨]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사흘 반 동안 스승님의 사랑이 한 ‘비전(秘傳) 박람회(Esoteric Fair)’를 성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채웠다. 우호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우리는 ‘대안적인 삶’ 전단과 500부가 넘는 견본책자를 나누어 주었다.

옆 부스의 전시자는 우리가 단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견본책자를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그녀는 우리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나머지 자기 손님들을 응대하는 것도 잊은 채 줄곧 우리 부스에 머물렀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사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한 사람이 이토록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믿을 수 없어했다. 마치 그들의 발이 자동적으로 그들을 우리 부스로 계속 이끄는 것 같았다. 우리 부스를 여러 차례 방문한 한 소녀는 신실함이 가득한 눈을 반짝이며 스승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결국 한 사형이 “이 사진을 갖고 싶니?” 하고 묻자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예, 부탁드립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사형은 그녀에게 그 사진을 한 장 주었다.

또 어떤 여성은 우리 부스에서 1시간가량 서서 스승님의 강연과 음악에 심취했다. 이따금씩 내 목에 걸린 스승님의 사진을 쳐다보던 그녀는 “그 사진 있나요? 정말 마음에 드네요.” 하고 물었다. 이에 그녀에게 정말 갖고 싶은지 묻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내 목걸이를 주었다. 그녀에게 있어 그날 저녁은 최고의 저녁이었으며,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뻐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부스를 정리하는데 도와줄 일손이 별로 없었다. 우리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워 찢찢 매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하늘에서 푹 떨어진 것처럼 동수들과 비입문자들이 나타나 도와준 덕분에 10분 만에 정리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정말 스승님은 모든 면을 돌봐 주신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코스타리카 소식

스승님의 생신을 맞아 시공을 초월한 행복과 사랑을 느끼다

코스타리카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산호세] 스승님 생신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스승님에 대한 사랑과 영원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많은 시들이 끊임없이 접수되었다. 스승님의 축복을 받아 코스타리카의 모든 동수들 가슴속에는 큰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4일 일요일, 만면에 함박웃음을 띤 채 명상을 하러 센터에 도착한 동수들은 스승님의 다음 편 영국 강연 DVD를 어서 보고 싶어했다. 명상을 마친 후 우리는 다 함께 많은 케이크와 ‘레스발라데라(resbaladera)’라는 코스타리카 전통음료 등을 곁들인 풍성한 식사를 하면서 이날을 경축했다. 모두 함께 모여 스승님의 사랑과 무한한 축복을 누릴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우리를 스승님에게서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스승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항상 느끼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스승님과 함께 이날을 경축했다.

스승님께 사랑을 전하는 사제들의 편지:

♥ 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자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신 칭하이 님께.

생신을 맞이하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빌며 저희의 사랑을 가득 전해 드립니다. 스승님께서 우리와 이 행성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 그리고 신의 축복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바다, 자비로우신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스승님, 영원히 저희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 사랑하는 스승님께.

당신의 생신은 모든 중생들에게 있어 가장 큰 행운의 날이자 온 우주의 경축일입니다. 몇 해 전에 “하느님, 당신을 알게 해주시겠습니까?”하고 기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스승님의 비할 데 없이 큰 사랑 덕분에 저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저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오늘 당신께 제 헌신적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바칩니다. 언제나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모든 코스타리카 제자들이 스승님께
가장 깊은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





포모사 소식

교정에 깨끗한
삶의 씨를 뿌리다

타오위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오위안] 포모사 타오위안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이 신년 연휴 기간 동안 영국 서리 센터에서 청소년과 마약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에 큰 자극을 받아 타오위안 현 종리 고등학교에서 열린 ‘마약 퇴치 박람회’에 참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방문객들에게 환경 보호와 건강과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20일 박람회 당일 타오위안 센터 동수들은 채식 바자회, 퀴즈 대회, 베품시장, ‘대안적인 삶’ 전단 돌리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한 채식과 금연을 홍보하는

대형 포스터를 제작해 행사장 곳곳에 걸어 두었다.

채식의 개념을 더욱 알리자는 취지에서 지역 센터는 먼저 채식 요리에 조예가 깊은 동수들이 경험이 부족한 젊은 동수들에게 채식 요리법을 전수해 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 당일에는 젤리, 팬케이크, 옥수수 수프, 유기농 냉면, 스투, 땅콩 두부 등 갖가지 음식을 마련되었는데, 많은 교사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해 음식을 많이 사 가지고 갔다. 일부 사람들은 몇 번이나 사 가면서 “음식이 정말 깔끔해 보이고 맛있네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알고선 급우들을 불러 맛을 보게 했다.

우리는 최신 과학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준비하고 정답을 맞힌 사람에겐 ‘대안적인 삶’ 서류철과 쇼핑백, 채소와 과일 모양의 자석 핀, 동물 숨인형 등을 상품으로 주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고3 여고생은 우리 부스 앞에 놓인 포스터 앞에 서서 한두 시간가량 내용을 꼼꼼히 읽은 덕분에 퀴즈 대회가 열리자 문제마다 답을 맞춰 적지 않은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 학교 곳곳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이 배포되었으며, 사람들은 이를 받자마자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동수들은 집에서 가져온 좋은 책과 교육용 완구, 가정용 가전제품 등을 자선 바자회에 내놓기도 했다. 물





진값이 아주 쌌기 때문에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 학생들은 보물을 얻은 양 아주 기뻐했다. 아버지와 같이 온 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찾아 꼭 껴안고 기뻐하던 모습은 동수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비록 자선 바자로 얻은 수익금은 적었지만 뜻 깊은 이 행사는 전체 박람회에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타오위안 센터 동수들은 자선 바자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종리 고등학교에 전달해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쓰이도록 했다. 이 기부금은 애초 우리의 참가를 크게 환영해 주었던 교무 주임이 전해 받았는데, 린 주임은 바쁜 와중에도 우리 부스에 들러 최근 '베스트셀러'를 동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다. 동수들은 그의 성심 어린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우리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라는 걸 알고선 바로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로 여러분 같은 단체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린 주임은 현재 20명에 가까운 학생이 학교로부터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받는다며 이 기부금이 그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무조건적인 봉사와 사랑의 행위에 깊은 감명을 받고 고마워했으며 우리 또한 이렇게 숭고한 이상을 가진 교육자를 만나게 된 것이 기뻐다. 동수들은 다음 세대들이 '오염 없는' 깨끗한 사회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날 행사를 마쳤다. ★



종리 고등학교 린 교무(왼쪽)가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받다.

포모사 소식

채식 생활 방식 세미나



한의학 무료 건강 상담(위).

양의학 진료(오른쪽).



포모사 자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자이]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30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자이 센터는 자이 척추 부상자 협회와 함께 심신 건강 생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전문의 동수들, 척추 부상자와 그 가족,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해 의료



비디오를 주의 깊게 시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세미나가 끝나기 전, 척추 부상자 협회 총 간사인 황 선생은 이 뜻 깊은 활동을 공동으로 개최해 후원해 준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의 사랑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예방, 건강 관리, 영적 측면에서 토론을 벌인 것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직원들에게 명상에 관심 있는 척추 부상자 협회의 회원들 및 자원 봉사자들을 조 사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연락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배워 그 이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동수들은 모두에게 좀 전에 배운 명상법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면서 건강하고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하면 육신의 구속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

보건 지식을 함께 나누었다. 동수들은 채식 식사와 더불어 명상과 영적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대중들에게 심신이 건강한 채식 생활 방식을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두 명의 전문 의료인이 나와 심신과 영혼의 건강을 얻는 법을 설명했다. 먼저 린멍스(林孟仕) 박사는 인체가 건강해지는 길은 해독이 기본이라고 했다. 이 원리는 관음법문이 명상으로 영혼을 정화한다는 것과 상통한다. 두 번째 연설자인 황젠선(黃建勳) 박사는 채식이 건강 유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설명에 따르면 많은 의료 학술 기관의 연구 결과 육식은 몸을 산성 체질로 만들기 쉽고 질병을 유발하며 식물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건강에 더 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동수들은 영양 많고 건강에 좋고 맛있는 채식을 준비해서 모두에게 대접하는 한편 ‘대안적인 삶’ 서류철을 나눠 주어 채식의 영양과 이로움을 알렸으며 채식에 관한 스승님의 강연인 ‘진정한 영웅’도 상영했다. 채식의 맛과 이로움에 깊은 인상을 받은 참석자들은 보다 열린 마음으로 채식 생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점심 식사 후, 무료 건강 상담과 개인 건강 진료, 방법법 전수 시간이 마련되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 채식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한 달에 열흘씩 채식을 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약 20명이 방법법을 배웠다. 이들은 명상할 때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내면의 빛을 체험하기도 했다.



방법법을 배우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



어머니날을 맞아 성모의 사랑에 감사드리다

포모사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시우] 이번 어머니날은 마침 포모사의 정기 선이 행사 둘째 날과 겹쳤다. 이에 동수들은 철야 명상을 마친 후 시후를 찾은 손님들과 함께 이날을 경축했다. 모두 3천 명 이상이 시후 센터에 모여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중 핵심 내용을 감상하고 어머니날 및 스승님의 생신 기념 공연을 즐겼다.



첫 번째로, 사회를 맡은 사저가 포모사의 모든 동수들은 대표해 스승님께 바치는 시를 낭송했다. 그 뒤로 타이난 사형이 바이올린으로 스승님의 창작 가곡인 '비가 오면 나를 기억하세요(Remember Me When the Rain Falls)'를 경쾌하게 연주하자 사람들은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면서 이 즐거운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이어서 대학생 동수들을 따라 '어머니, 당신은 위대하십니다'를 부른 후 스승님의 육성과 함께 '어린 양은 집에 가고 싶어하네'를 합창했다. 그러는 가운데 동수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길 없는 스승님의 은혜에 가슴 뭉클해졌다.



이런 무한한 감사의 분위기 속에 많은 동수들이 지난날 스승님과 함께 지냈던 시절을 회상했다. 린 사저는 "초창기 어느 해의 어머니날 저녁, 스승님께서 예비 입문자와 동수들을 위해 직접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어머니날을 즐기느라 스승님의 일을 나눌 줄 몰랐고 오히려 스승님께서 우리 식사를 준비하시도록 했지요. 그로부터 20년이 다 된 지금 까지도 그 아름다운 기억들은 잊혀지지 않습니다."라고 회고했다.



난토우 센터의 후 사형도 두 수의 시로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 중 한 수는 다음과 같다. "성스러운 빛이 구천(九天)을 비추니/ 잔잔한 마음이 사해(四海)의 성인들을 부르고/ 깨달음이 나를 신선의 경지로 이끄니/ 세속의 먼지를 씻어 투명한 지혜가 나온다." 경축 행사를 마치면서 동수들은 신의 빛이 온우리를 비추고 지구의 모든 중생들이 영원토록 평온하기를 기원했다. ★





몽골

신의 사랑의 빛이 모든 활동을 통해 몽골을 비추다

몽골 뉴스그룹 (원문 몽골어)

[몽골] 몽골 동수들은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형 무역 센터 박람회장에서 열린 '2006 최고의 브랜드전'에 올해 처음으로 참가했다. 동수들이 운영하는 두 업체도 이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 기간 동안 몽골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전단을 수천 명의 참관객들에게 나눠 주고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또한 손님들에게 두유와 다른 육류 대체 채식 식품들을 무료로 시식해 보도록 권했다.

'채식 식품 아카데미(Academy of Vegetarian food)' 회장을 맡고 있는 한 사형은 '생명을 보호하는 순수한 음식'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단체에서는 건강을 중시하고 살생을 하지 않으며 육류와 어류, 계란 성분을 배제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표창해 이런 제품을 보다 많이 생산하도록 격려하고 있기도 하다.

스승님의 생신을 경축하기 위해 몽골 센터는 소외층 돕기와 청소가 필요한 곳 청소하기,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홍보 활동 등을 계획했다. 5월 12일, 우리는 연화 센터(Lotus Center)를 방문했다. 아이들에게 채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고아원인 이곳은 종종 채식으로는 충분히 영양을 공급할 수 없다는 외압을 받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이곳에 지원과 격려를 전하고 싶었던 우리는 고아원에 콩 제품을 제공하고 원아들에게 옷과 사탕을 나누어 주었다.



시내 중심지에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이용하는 병원 이 한 곳 있는데 그다지 위생적이지 않았다.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깨끗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한 동수들은 그 병원을 찾아가 청소를 도와주었다. 우리는 또한 지역의 생태계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몽골의 많은 나무들이 불법으로 벌목되어 각지에서 가뭄이 발생하자 정부는 '한 사

람당 한 그루 심기'라는 전국적인 식목 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무를 많이 심도록 장려했다. 이에 우리가 수도 부근의 준사라(Zuunsalaa) 지역에 3,500그루의 나무를 심음으로써 이 운동을 지지하자 산림 관리원은 “정말 기쁩니다. 숲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별목 허가서만 내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심으러 온 사람들을 처음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나무 심은 곳에 스승님의 명호를 붙였으며, 이 운동의 행정관원과 협의해 앞으로 15년 동안 이 지역을 보호하고 돌보기로 하는 한편 매년 3,500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사형이 다른 단체에서 5월 12일에 채식을 제공하도록 부탁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래서 몽골 과학기술 대학(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대안적인 삶’의 이념을 선전한 결과 매일 1,500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섯 곳의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스승님의 생신에 하루 종일 채식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매일 200명에서 300명이 식사하는 칭겔테이(Chingeltei) 지역 경찰서 내 카페테리아도 일주일에 하루씩 채식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몽골 과학기술 대학의 카페테리아 다섯 곳도 9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화가인 한 사형은 스승님의 생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자신의 화랑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그는 스승님의 감로법어를 주제로 한 자신의 그림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알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겼다.

5월 13일 토요일 몽골 센터는 대중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영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대체로 채식이 라고 하면 쌀과 우유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채식 요리와 요리법도 아울러 소개했다. 행사 당일 100명이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그 중 90명이 방편법을 배웠다. ★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웅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에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우리는 신의 아이들

(원문 몽골어)

작사: L. Enkhtaivan 사형

시: Lhagva 사형

작곡: 방편법 수행자 D. Duger

우리 스승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
세계를 고양시키고 축복하실 힘을 가지신 분
스승님은 불생불멸하시며
우리에게 견줄 수 없는 진리,
비할 데 없이 오묘한 진리를 가르치시네.

합창:

맞아요, 우리는 신의 아이들.
우리는 영원한 빛에서 나온 빛줄기.
맞아요, 우리는 천국의 거주민.
우리는 드넓은 창공에 흐르는 음류.

순수한 우리 마음, 고귀한 우리 생각
행복과 지혜, 기쁨으로 충만하네.
신의 빛과 소리 안에 명상은 깊어만 가고.
우리 영혼은 이미 자유롭고
우리 마음은 이미 고결하네.

합창:

맞아요, 우리는 신의 아이들.
우리는 영원한 빛에서 나온 빛줄기.
맞아요, 우리는 천국의 거주민.
우리는 드넓은 창공에 흐르는 음류.

시 낭송:

마침내 행운의 시대가 도래했다.
어울락의 봄, 20세기에, 아시아 베트남에서
부처가 탄생하셨다!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꿈속에서
태양의 핵심으로 나타나셨다.

천국 모후의 자궁 속에서 자라나
성불하실 운명을 타고나신 분.

그분은 어울락 땅에 환생하기로 선택하셨고
히말라야 하늘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위대한 천상의 지혜를 가지신
최고의 부처가 지상에 내려오셨다.

노래:

우리는 타고난 낙천주의자, 기쁨주의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은 고용함과 만족감을 낳으며
우리의 믿음은 자비의 부처, 아리아발과 함께하네.

합창:

맞아요, 우리는 신의 아이들.
우리는 영원한 빛에서 나온 빛줄기.
맞아요, 우리는 천국의 거주민.
우리는 드넓은 창공에 흐르는 음류.



단체명상의 큰 힘

청하이 무상사/ 1999. 12. 28. 태국 방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79



어떤 사람에게 앞을 전혀 못 보는 ‘피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터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는 그냥 서서 소리치기만 했습니다. “마르코, 이리 와! 야, 당겨! 계속 당겨라, 당겨!” 하지만 그래 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터는 가만히 선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지요. 그러면 그는 다시 고함치곤 했습니다. “이리 와, 마틴! 당겨! 같이 당겨 보자!” 그래도 피터는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있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피터, 당겨 보자!” 하고 말하면 그제서야 피터는 당기곤 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물었죠. “왜 첫번부터 피터에게 당기라고 하지 않는 거야? 어차피 너에겐 말이 한 마리뿐이면서 왜 마르코와 마틴을 불렀던 거지? 대체 이유가 뭐야?” 그러자 말 주인이 대답했어요. “우리 집 피터는 너무 게을러. 개는 눈이 멀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지 않거든.”

여러분이 같이 명상할 때면 남자들은 ‘여자들이 다 명상하는데 남자인 내가 명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 하고 생각합니다. 여자들도 다 생각하지요. ‘남자들이 모두 함께 명상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누가 더 대단하지 보여 주겠어.’

우리가 같이 앉아 명상할 때는 모두들 같은 일을 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격려를 느끼고 크고 강한 단체의 힘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명상하게 되고 아주 쉽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혼자 명상할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할 수 있고 명상하고 싶은 마음도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한 명 이상, 두 사람이나 그보다 많이 같이 명상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느낌도 더 편안하기 때문이지요. 이진 심리적인 방식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강력한 두 명의 신이 명상하는 게 한 명의 신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선행사와 단체명상이 영적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단체명상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명상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발견했듯이, 나 역시 단체명상을 하고 선행사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대중 박수)

여기서 집중이 더 잘 되지요? (대중: 예!) 보십시오. 이진 마음의 작용과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로 정하고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을 하기로 결심하면 우리 마음은 이해하고 협조하게 됩니다. 여기에 온 여러분은 자신의 목적이 명상하는 것뿐임을 압니다. 선행사를 하는 이 한 주 동안 어떠한 사회적 연락이나 전화, 걱정거리도 없다는 것을 알지요. 이를테면 요리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여기에 명상만 하기로 마음먹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더 마음이 안정되어 그냥 명상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언제 명상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도 흔쾌히 협조하지요. ★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신을 아는 데서 얻는 자유이다

침하이 무상사/ 1999. 5. 30. 핀란드 헬싱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3

핀란드는 무척 신선하고 공기가 맑으며 모든 것이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심지어 수돗물도 아주 깨끗해서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돗물을 먹었는데 괜찮겠지요!

사람들에게 물을 바로 먹어도 되는지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기에 나는 매우 좋아하며 바로 물을 마셨습니다. 내가 보기엔 수도꼭지를 통해 대지에 있는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요. 언제까지나 물을 마셔도 고갈되지 않을 것 같고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물을 그렇게 바로 마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물이 매우 오염되어서 작은 물병에 든 물만 마실 수 있는데 아주 제약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요. 어떤 것이든 풍족하게 쓸 수 있다면 자유롭고 대단히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면에 있는 신의 축복을 활용할 수 있다면 아주 아주 자유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는 신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축복이 자동적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것으로서,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

을 알지 못하고 내면의 자유를 알지 못하며 내면의 기쁨과 축복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지요.

이 자유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재산이자 가장 위대한 공덕이며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때로는 나의 내면에 가득 찬 이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과거 삶을 돌이켜보고 또 지금의 삶을 살펴본다면 360도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나 자신과 온갖 인습, 선입견, 전통적인 생각, 생활 방식에 얽매이고 제한을 받고 구속받았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었어도 진정으로 자유롭게 느껴진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처음 신을 언뜻 보고 처음으로 깨달음의 맛을 보았을 때 나는 ‘바로 이거야!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자유를 계속해서 인식하자 그 자유는 계속해서 자라나 내가 더



이상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자유롭다는 것만 압니다.

우리의 일부 형제자매들이 예전의 나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매우 안됐습니다. 이 자유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깨달은 사람조차 완전한 자유를 얻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외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방을 뛰어다니거나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여러분의 내적 자유를 소리쳐 주장하는 식의 외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무한히 확장되는 느낌으로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전히 선(善) 속에 머물고 신의 사랑과 완전함 속에 존재하게 되며, 그 누구도 우리가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다치거나 살해되거나 억압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활을 유지할 자유와 생존의 자유를 얻기 위해 매일 아주 힘들게 일하곤 이 육체적 삶을 돌볼 정도의 생필품과 식량을 얻습니다. 우리에게엔 이미 물질적 편안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자유를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이걸 새로운 시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유라면 여러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유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결코 살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께 마련합니다. 그래서 나 또한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주고자 합니다.

영적인 자유는 완전히 '무료'

이 선물은 결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저 이것을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 마신 물보다 저렴합니다. 설령 우리가 물에 대한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해도 수도관과 물 저장 탭 등 모든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라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물, 즉 신이 주신 이 축복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잠을 자거나 커피를 마시며 쉬는 정도의 시간만 내면 됩니다.

우리는 전혀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느라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때로는 그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을 찾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이전 조금 있다가 알려 주겠습니다.), 내면의 자유와 행복을 찾는 법을 알기만 하면 이런 낭비되어 없어질 시간이나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해 우리 내면으로 향해서 내면의 고귀한 왕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시간이나 노력을 들일 필요 없이 그저 신을 어떻게 찾는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는 때로 남은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몰라합니다. 때로는 아주 지루하지요. 예를 들어 기차나 버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나 공원에 앉아 있을 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내면의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것을 외부로 표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이미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통신 회사도 두 개나 있지요. 그러므로 실제적인 면에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이 나라에 있는 물질적 안락함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없겠지만 세속의 재산이나 성취보다 위대한 것을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잊어버린 신의 왕국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걸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이 꽃을 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스승님이 강연 단상에 놓인 꽃을 가리키심) 아주 쉽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대부분이 이 방법을 배우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이것을 배우는 게 좀 어렵다는 것



이 문제인데, 아마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익숙해져 있는 생활 방식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원래 채식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장(腸)은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보다 길지만 우리는 육식에 습관이 들도록 배웠기 때문에 본래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른바 '방편법'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채식을 한번 시도해 보고 그것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채식 요리를 하는 법도 알려 줄 것이고 요리책자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의 고아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들 육식에서 채식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걸로 생각하는 데, 사실 우리는 잊고 있었던 올바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용감하게 오늘부터 이를 따르기로 결심할 수도 있고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을 알면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신의 힘과 연결되어 이 힘을 믿게 되면 모든 면에 있어 가장 자잘한 부분까지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신과 연결되게 되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온갖 장애와 문제를 해결할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과 연결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이며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언제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먹을 양식이 없거나 교통수단이 없어도, 또는 인생에서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감해져야 하며 우리의 가슴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천천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간이니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가 그 래야 하는 이유는, 일단 신과 연결된 후 신과 하

나가 되고 신과 같아지길 바라면서 이 행성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이 되기를 바란다면 신의 품성, 즉 사랑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는 모든 존재가 포함되지요.

인간 사회에 수많은 계층이 있듯이 천국에도 많은 등급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장 높은 천국에 이르고자 하고 가장 심오한 우주의 비밀을 알고자 한다면 짐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술이나 마약을 하고 고기를 먹는 것은 짐덩이로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은 신이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 육체가 무엇을 섭취하는지 신경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고 비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감정적·영적으로 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터무니없는 잘못을 저질러도 신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신의 눈에는 언제나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양심을 위해 우리는 고귀한 사랑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무 죄책감도 없고 신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신이었으며 결국에는 사랑의 바다, 신과 다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으니깐요. 우리는 이 물질세계에 화현한 신이므로 우리 자신, 우리의 지혜, 양심, 공정심을 제외한 그 무엇도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부터 유래된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불필요한 짐들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자아는 신에게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대하고 사랑과 빛, 축복으로 충만한 순수한 본질입니다.

고대 스승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테면 서로 사랑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며 있는 힘을 다해 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신을 모른다면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신



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을 사랑하고 매일 신의 사랑과 축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신을 말하고 어딜 가나 신에 대해 얘기들 하지만 이제는 신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신을 알면 우리를 고양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고양시키고 세상의 기운에 축복을 더해 전쟁을 줄이고 보다 많은 평화와 사랑을 가져오게 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천국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는 살아 있는 전극(電極)이 되면 우리 몸에서 이 사랑과 축복이 주위로 뿔어져 나갈 테니까요.

신을 알면 온 우주와 다시 연결된다

그러므로 신을 아는 것은 단순히 신의 힘만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이 지구, 나아가서는 온 우주에 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든 물질 속에 들어 있는 원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물체를 이루듯이 우리 또한 우주의 원자로서 이 우주 구조를 견고하게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래서 만일 우리 내면의 빛과 힘이 다시 불붙는다면 온 우주가 이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신에게서 비롯되었고 신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의 존재인 신은 형태가 없지만 그분은 이런 육신이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비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신에 대해 명상할 때 내면으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난 신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이생과 다음 생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부처 등 과거의 모든 스승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면해 얘기를 하고 그들

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그들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무력하고 갇고 다니기 번거로우며 부자유스럽고 제한도 많은 육체가 될 수 있냐?’고 의아할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바를 말하자면 명상 중에 신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여러분은 우유를 가지고 어떻게 버터나 치즈를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유는 액체지만 이것을 농축해 통에 넣고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치즈로 굳힐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은 원래 빛이며 매우 섬세하고 미묘한 진동력입니다. 이 빛이 온 우주의 모든 입자를 창조했으며, 우리는 휘젓는 교반(攪拌) 과정을 통해 이 물질적 존재로 응축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내게 또 다른 점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는 이런 물질적 존재로 결코 섞이지 않는 입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구원의 힘이며 이 신의 사원에 거하고 있는 ‘성령’입니다. 우리 인류는 창조의 교반 과정에서 밑바닥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소 조악하고 성가시고 무거운 것입니다. 이런 것 외에 우리 위를 떠다니는 다른 진동 에너지들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진동력을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그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작은 불꽃은 결코 오염되지도 않고 물질 에너지로 변질되지도 않은 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불꽃에 접근해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존재의 원래 상태인 빛, 섬세한 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 빛, 이 섬세한 에너지, 이 미묘한 ‘진동력’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Word)’이기도 하며, 이것이 바로 신이자 우리 존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미세한 에너지, 태초의 빛과 말씀과 접촉하는 것이 곧 신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핀란드



진취적인 정책으로 국제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핀란드

하누 호빌라이넨 사형/ 핀란드

매년 발간되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는 전세계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침서인데, 핀란드는 올해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세계 경쟁력 프로그램(Global Competitiveness Program) 국장의 말에 의하면, 핀란드는 노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재정을 창출하고 사회적인 서비스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선 거의 모든 지역 사회가 노인들을 돌보는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노인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교육 수준 또한 매우 높다.

3년에 한 번씩 주요 산업국가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과 재능을 조사하는 국제 학생 평가(PISA)에 따르면 핀란드 학생의 50%가 매우 뛰어난 독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의 학생들 중 이에 해당하는 수치는 32%였다. PISA의 자료는 독서에 대한 몰입도와 흥미가 핀란드 학생들의 독서 능력 편차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잘 보여 준다. 핀란드 PISA 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핀란드 종합 중등학교 과정에서 이

미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었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배경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핀란드에서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늘고 있다. 현 대통령도 여성이고 여성 의원이 국회 의석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 행정부의 장관직 중 44%가 여성의 몫이다. 2004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은 36%에 달했는데, 이는 이전의 선거에 비해 2% 증가한 것이다.

핀란드 최초의 여성 원수인 타르야 할로넨(Tarja Halonen) 현직 대통령은 최근 선거에서 6년 임기로 재선 출되었기 때문에 최초의 여성 재선 대통령이 되기도 한다. 할로넨 대통령은 오슬로 평화 인권 센터(The Oslo Center for Peace and Human Rights)의 명예직과 함께 몇몇 UN 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2002년에는 인권 수호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 수여하는 상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부모의 권리를 향상시켜 온 핀란드 정부는 현재 자녀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무급 휴가를 낼 수 있게 했다. 또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가정 육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아 수당을 늘렸는데, 올해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

참조:

<http://www.tpk.fi/>

<http://www.tuulahaatainen.net/>

http://www.amnesty.fi/uutiset/lehti_tiedot.php?id=97

<http://www.ilo.org/public/english/airglobalization/report/index.htm>

<http://fi.oneworld.net/article/archive/3583/m/2004/4>

<http://www.stm.fi/Resource.phx/publishing/documents/7084/index.htm>

<http://www.weforum.org/site/homepublic.nsf/Content/Global+Competitiveness+Programme%5CGlobal+Competitiveness+Report>



미국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의 채식 법안이 통과되다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스승님의 축복과 동수들의 노력 덕분에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가 플로리다 전역에 퍼져 나갔다.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주는 최초의 채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채식주의가 최초로 플로리다 법률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법안은 4월 11일에 상정되어 4월 25일에 가결되었다. 미국 전역의 채식 단체들은 이 예상치 못했던 눈부신 성과를 축하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HR9095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내년은 ‘건강한 학교 급식의 해’로서, 주 내의 모든 학교 당국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고정적인 채식 주**

요 요리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일상 음식 중에 과일과 야채, 도정하지 않은 곡물과 콩류를 포함시켜야 하며 이런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 법은 “학교 식당에서 **채식 주요 요리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나쁜 식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채식주의자 혹은 비건이라고 밝힌 학생들과 육류와 유제품을 멀리하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 적절한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유럽연합



먼 곳에서 사랑의 지원을 받은 볼리비아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에 몇 차례의 홍수와 우박, 폭설, 극심한 서리가 닥쳐 2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가난한 나라인 볼리비아로서는 희생자들을 구제할 방도가 없는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언론마저 이 이재민들을 대부분 외면했다. 세계 루터교 구제회(Lutheran World Relief)의 지역 대변인은 유감스러워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긴급 상황 중 하나입니다. ...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볼리비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았다. 유럽연합(EU)이 1백만 유로(미화 120만 달러) 상당의 구호 물품을 이 가장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것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자국이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나라로서 유럽연합의 무역 대상 순위 138위로 거의 정책상 중요성이 없는데도 이런 도움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유럽연합에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

놀라운 것은, 유럽연합이 매년 볼리비아가 받는 외국 원조의 57%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조는 새 유럽의 고아한 이상을 보여 주는 빛나는 증거이다. 유럽 각국은 평화롭게 한데 결속한 지 몇 십년 만에 다른 나라를 돕는 박애주의 활동에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국민 소득 가운데 외국 원조 비용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며 국민 관용(寬容) 지수 또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존경받고 신뢰받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

참조:

<http://www.lwr.org/news/news.asp?LWRnewsDate=04/17/2006>

http://ec.europa.eu/echo/presentation/mandate_en.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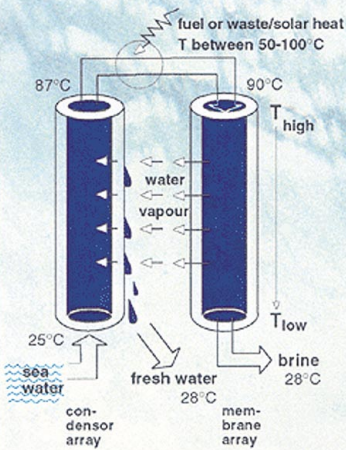
http://www.cgdev.org/section/initiatives/_active/cdi

http://www.oecd.org/departement/0,2688,en_2649_34447_1_1_1_1_1,00.html

가장 깨끗하고 저렴하며 친환경적인 정수 시스템

로이 만나트 사형/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원문 네덜란드어)

Principle of Memstill-process



우리 지구는 70%가 물로 덮여 있지만 식수는 부족하기만 하다. 지구상의 물 중 겨우 2.5%만 마시기에 적합하고 그 대부분은 남북극의 얼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덜란드 응용과학 연구원(Netherlands Organization for Applied Scientific Research, T.N.O.)에서 나머지 사용할 수 없는 97.5%의 바닷물을 식수로 변환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야의 기존 방법은 비용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T.N.O.는 아주 적은 에너지만으로 오염된 물과 바닷물을 가장 깨끗한 음용수로 바꿀 수 있는 멤스틸(Memstill)이라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멤스틸은 그 어떤 방법보다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다. 이 기술은 모든 산업국가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인 '엔진을 구동하고 남은 열'을 사용한다. 따라서 멤스틸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도 온도만 약간 변화시키면 공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T.N.O.는 이런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몇 가지 소규모 예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현재는 싱가포르 수도국(Public Utility Board)의 위탁을 받아 시간당 1천 리터의 바닷물을 고품질의 음용수로 여과하는 비교적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여념이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엔진을 돌리고 남은 열로 담수 처리를 할 경우엔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요되는 정수 비용이 1천 리터당 약 30유로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 이런 기술로 지하수 1천 리터를 정수하는 데는 10에서 20유로센트의 비용이 들며 표층수 1천 리터를 정수할 때는 50에서 60유로센트가 든다.

멤스틸 기술의 또 다른 장점은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1천 리터당 2유로센트를 더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 20년 내에 인구가 현재보다 50% 증가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음용수의 양도 줄어들 것이란 예측에 따라 비용이 저렴한 정수 처리 기술의 장래는 매우 전도유망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300만 가정이 정수기를 통해 수돗물에 들어 있는 염소와 같은 소독 물질을 여과하고 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의 수자원 공사들 또한 바닷물을 정수하기 시작했지만 앞서 언급한 기술보다는 비용이 높다. 각국에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식수를 생산하는 기술을 찾고 있기 때문에 멤스틸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



스승님의 영적 알파벳



보통 어떤 사람에게 이름이나 단어의 철자를 알려 줄 때 흔히 쓰는 명칭을 이용해 해당 낱말의 철자를 표현한다. 스승님은 황금시대 3년(2006년) 1월 7일 영국 서리에서 말씀하시던 중 동수들과 단어의 철자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논의하셨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영적 알파벳’이 만들어졌다.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의미가 넓고 즐겁고 영성을 고양시키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우리의 의식도 고양될 것이다. 축복과 희망,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 단어들은 미묘하게 우리를 일깨워 주고 다른 사람들이 보다 높은 방향으로 생각하게 해서 인류가 천국 생활의 시대로 들어가는 속도를 높여 줄 것이다. ★

영적 알파벳

A Almighty 전능
B Buddha 부처
C Ching Hai 청하이
D Divine 신성한
E Enlightenment 깨달음
F Faith 믿음
G God 신
H Heaven 천국
I Infinite 무한한
J Jesus 예수
K Kindness 친절
L Love 사랑
M Master 스승

N Noble 고귀한
O Omnipresent 무소부재한
P Peace 평화
Q Quan Yin 관음
R Rainbow 무지개
S Supreme 최상의
T Truth 진리
U Unity 화합
V Virtue 미덕
W Wisdom 지혜
X Xmas 크리스마스
Y Yoga 요가
Z Zen 선(禪)

영적 알파벳을 통해 새로 눈뜨는 세상

무지개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올해 신년 기간 동안 영국에서 하신 스승님의 강연 ‘영적 알파벳’을 본 뒤 많은 동수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영어 알파벳을 보는 법을 배웠으며 그때부터 영어 단어를 보는 게 쏠쏠한 즐거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어느 날 나는 몇몇 사저와 함께 차를 타고 단수이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러 가게 되었다.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영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각자의 영어 이름에 우아하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곤 기쁨을 금치 못했다. 안나(Anna)는 두 배의 전능함과 고귀함을 뜻하고 그레이스(Grace)는 전능하신 신 칭하이와 깨달음의 무지개를 뜻하며 레이(Ray)는 전능한 힘과 무지개 빛을 갖춘 요가 수행자를 뜻한다는 것을 깨닫자 갑자기 우리 마음은 불가사의한 신의 힘으로 가득 찼으며 한없이 기뻐졌다.

그러다 문득 어떤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본 한 사저가 그 차의 번호판이 G로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저것 봐! 신의 차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는 지나가는 차들의 번호판을 열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C3! 와, 진짜 대단하다! 칭하이 그리스도가 세 분이나 돼! 저 차에 탄 사람들은 분명히 굉장한 축복을 받았을 거야!”

“RW! 지혜의 무지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겠지!”

“AZ, 전능한 선(禪). 환상적이네!”

“BD, 신성한 부처! 저 차에 타면 아주 멋지겠는걸!”

“저 차, 정말 끝내 준다! KN, 친절하고 고귀하다니!”

이런 식으로 가는 동안 내내 우리는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던 번호판이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기쁨을 가득 안겨 주었던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우리를 위해 운전해 준 레이 사저는 이렇게 즐거운 여행은 정말 처음이라고 하면서 매우 좋아했다. 알파벳에 대한 스승님의 영적 해석은 이 세상 만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준 듯했다. 원래는 의미가 좋지 않았던 단어나 용어조차 이제는 26개의 영적 알파벳으로 해석하기만 하면 다른 뜻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밖에 스승님 덕분에 우리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세상을 좀더 긍정적이고 영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법도 배우게 되어 이 세상을 축복하게 되었다! ★



인생의 도전에 절대적인 해답이란 없다

스승님: 문제가 있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명상입니다. 그 밖에 다른 방도는 모르겠어요. 명상을 해도 해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집중을 잘 한다면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영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빨간색 사탕과 녹색 사탕을 가져다가 이렇게 몇 번 던지고선 스승에게 기도하세요. “녹색은 ‘맞다’, 빨간색은 ‘아니다’입니다.” 하고요. (대중 웃음) 하지만 늘 정확한 건 아니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항상 정확한 게 아닐까요?

동수 1: 확률이 5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왜 그렇죠?

동수 1: 도박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운명에 따라 정해지니까요.

스승님: 운명이니까 바꾸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동수 1: 바꿀 수 있습니다. 녹색을 잡았어도 명상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승님: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고 왜 항상 결과가 정확하지 않는냐는 거예요. 사형, 왜 그럴까요? 어째서 남자들은 제대로 듣지 않는 거지요! (스승님께서 다른 동수가 대답하도록 하시다.) 말해 보세요!

동수 2: 업이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럴 수도 있지요.

동수 3: 명상할 때 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것도 맞아요!

동수 4: 마음 때문입니다.

스승님: 그래요! 마음, 명상, 업...

동수 5: 한 가지 상황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지요.

스승님: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모두들 훌륭해요! (스승님 농담하심.) 멋지게들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해결책이 늘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로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항상 다른 것들이 서로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장 좋

다고 여겨지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가외의 ‘선물’ 처럼 뭔가가 같이 붙어서 옵니다. 정말 높이 올라간다면 잘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직관에 의지하거나 업의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높아져 일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잘 알게 되어도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업장이 그 ‘배후’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생의 업, 현생의 업, 그리고 친구나 원수, 전생의 친척, 남편, 아내 등 다른 사람들이 얹혀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다채롭게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도전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생이라네(C'est la vie)!’

집중은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질문: 저는 집중이 어렵습니다. 집중이 비교적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집중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스승님께서 제가 보다 강하게 한곳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때로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스승님: 알아요, 알아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라고 지칭해도 됩니다. ‘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중 웃음) 걱정하지 마세요. 집중은 당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전에 먹은 음식, 만난 사람, 시청한 TV 프로그램, 읽은 잡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지요. 또한 당신이 있었던 곳, 말하자면 그 장소의 환경이라든지 에너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나머지는 신께 맡겨라

질문: 제 명상에 조언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최상의 명상을 하고 최대한 깊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스승님: 계속 노력하세요. 잘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계속 노력하세요! 세상이 너무 거친 데다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성공적이냐가 아니라 노력입니다. 끈기와 신실함을 계속해서 단련하고자 노력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은 결코 명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닌 가장 신실한 사람을 택합니다. 당신이 한 걸음만 내딛으면 천국이 나머지 99걸음을 걸어 줄 것입니다.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최선을 다해 명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돕고 싶다면 남을 돕고 형제자매를 도우십시오. 영적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돕는 최선의 길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최고입니다.



신실함과 집중력이 단체명상의 효과를 결정한다

칭하이 무상사/ 2002. 9. 28.

코스타리카 산호세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단체명상 중에 업과 에너지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수행자에게 얼마만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스승님: 그건 그 순간의 신실함과 집중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더 집중하고 신실할수록 자기 몫으로 얻는 축복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니 집중하고 신실해지십시오!

수행의 길에 놓인 업장을 극복하라

칭하이 무상사/ 2002. 10. 6.

독일 함부르크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질문: 모든 이들이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데, 그러고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스승님: 때로는 잠시 동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나쁜 업을 좀 쌓게 되면 당연히 이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 들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닦아내는 과정일 뿐이지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그저 올라가기만 하고 결코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그것은 장애와도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잘 달리고 있는데 별안간 도로 위에 돌이나 짐승의 시체 같은 것이 있어 멈추어야 하거나 샛길로 빠져서 돌아가거나 장애물을 치우고 나서 계속 가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여러분의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



스승님, 나의 성모님

삼 벤카테스와란 사저/ 미국 미시간 (원문 영어)

오, 스승님. 나의 성모님
당신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리 오셔서 제 가슴속에 머무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결코 헤어지지 않도록!
절 사랑하신다는 말씀, 한번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당신을 사모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오, 스승님. 나의 성모님
당신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저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 형용할 길이 없고
당신은 가장 위대하신 스승이자
정말 천국의 존엄하신 분이시며
저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 스승님. 나의 성모님
당신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저의 어머니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노란 장미'를
제가 작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당신은 제 모든 슬픔을 없애시며
마야의 화살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 스승님. 나의 성모님
당신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저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절 웃게 하시고 울게 하시며
제가 결코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명상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사랑만 하고 미워는 할 수 없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 스승님. 나의 성모님
당신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저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매우 유머러스하고
우리를 위해 아주 많이 애태우시며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정하시며
우리의 말썽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 스승님. 나의 성모님
당신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를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감내하시는 당신께
끝없이 감사드립니다!
이 환상의 혼란에서 절 구원해 주신 감사의 마음을
어찌 저 같은 사람이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 스승님. 나의 성모님
당신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저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이 세상이 환상임을 보여 주셨고
영혼의 양식으로 저희의 영원한 영혼을 길러 주셨으며
당신의 자비로움은 한없이 위대하기만 해서
저희가 내면으로 들어갈 때
천국의 문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 스승님. 나의 성모님
당신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저의 어머니입니다!
오, 스승님. 나의 성모님
당신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저의 어머니입니다!



스승님께 드리는 금붕어의 메시지

파닉스 사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원문 독일어)



스승님의 생신을 맞아 스승님이 구하고 계시는 동물들을 대신해 가장 신실한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은 스승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사실 2년 전에 어떤 금붕어로부터 채식 생활 방식을 장려하는 스승님의 자비로운 사명에 대해 스승님께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스승님께서 동물들과 이야기하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신 후 저는 사랑의 마음과 마음속의 이미지를 통해 그들과 소통하고자 시도해 봤는데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느낌과 요구에 더욱더 민감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어떤 사제 집에 있었는데 그 집 어항에 금붕어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마리가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튀어나올 정도로 화가 난 눈으로 신경질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자기 심정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에 다른 금붕어와 함께 어떤 식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옆에는 송어, 바닷가재 같은 큰 물고기가 든 어항이 하나 더 있었는데 손님들에게 대접될 용도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물고기들은 아주 크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한 마리씩 잡아 튀겨지게 되었지요. 그는 매일 이런 무서운 살육 장면을 보면서 끔찍했다고 하면서 인간이 왜 자기 동족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물고기들은 매우 온화한 피조물로서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어떤 한 물고기와 친구가 되면 바다에 갔을 때 다른 모든 물고기들이 저를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했지요. 또 금붕어는 물고기 중에서 수호자인 썸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항에 다른 금붕어가 한 마리 더 있었지만 죽었고, 그 집 사제의 어린 아들이 어항 옆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트는 바람에 때로 그와 다른 물고기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곤 한답니다. 하지만 그 사제는 수행을 하고 유난히 다정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인간이 동물을 죽이고 먹는 것은 아니며 저만 해도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물고기나 동물도 먹지 않는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신 영적 스승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채식을 함으로써 동물과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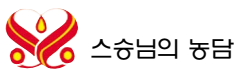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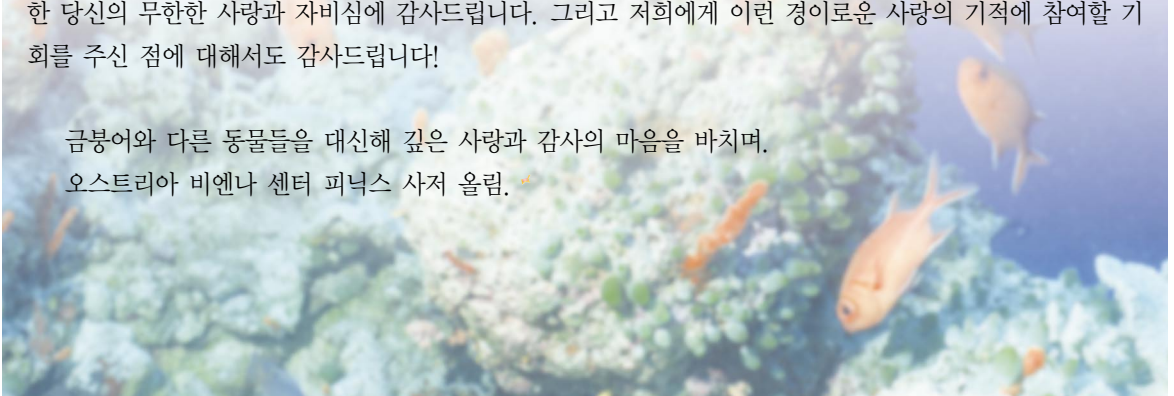
든 생명을 사랑과 자비로써 대하도록 가르치신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가장 신실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물고기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동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스승님을 사랑한다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이어진 금붕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에게도 그와 같은 스승이 있다면 아름답게 빛나는 어떤 금붕어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금붕어의 주인이 동수이기 때문에 화신 스승님이 그 사제의 물고기까지 돌보시고 아름다운 ‘금붕어 스승’의 몸으로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사제의 집에 다시 들러 보니 그 작은 물고기는 훨씬 진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나 여자 친구쯤 되어 보이는 다른 금붕어도 그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채식을 하도록 하는 스승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스승님에 대해 듣고 나서 기분이 훨씬 나아졌으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금붕어 주인인 사제를 통해 저는 요전에 금붕어 한 마리가 죽었다는 것과 이 어항이 원래 남편의 육식 레스토랑에 있었으며 그 옆에 송어와 바닷가재가 든 수족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붕어의 이야기, 스승님께 전해 달라고 요청한 메시지입니다. 스승님, 우주의 모든 존재들에 대한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런 경이로운 사랑의 기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금붕어와 다른 동물들을 대신해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바치며,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피닉스 사제 올림. ✨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어느 날 밤 정신병동의 세 남자가 각자의 방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뜬금없이 “너희들 알아? 난 모세야!” 하고 얘기하자 옆 방 남자가 대꾸했어요. “이런, 말도 안 돼! 어떻게 네가 모세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자 첫 번째 남자가 말했죠. “신께서 말씀해 주셨지!” 그러자 시간이 좀 흐른 뒤 두 사람의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 ‘대안적인 삶’ 을 나누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세계에 제시하고자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 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을 디자인하셨다. 스승님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고 살생을 멈춤으로써 전세계적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무수히 많은 동물 친구들을 구하자고 하신다. 또한 스승님은 모든 동수들에게 전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라고 당부하셨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각국에서 진행된 활동 소식들이다.



스위스

평화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한 성실한 노력

울슬라 클라인 사저/ 스위스 제네바 (원문 영어)

로잔 자연 의학 박람회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말 제네바 센터는 로잔(Lausanne)에서 이틀 동안 열린 ‘자연 의학 박람회(Natural Medicine Fair)’를 방문해 이 인기 있는 건강 음식 및 자연 의학 전시회에 참가한 부스 전시자들과 방문객들에게 많은 전단을 배포했다.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에게 이미 자신은 채식을 하고 있다고 하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채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단을 나눠 준 것에 고마워했다. 다른 부스 참가자들도 전단을 받고 매우 기뻐했으며 명상에 관해 질문을 했다. 대부분이 건강 음식을 판매하긴 했지만 채식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들이 채식이 가장 좋은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우리는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해 부스를 차린 스위스 채식 협회와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 전단을 받아 자기네 진열대에 전시하는 한편 그들 부스 앞에서 전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들은 채식 홍보 활동에 매우 헌신적이었으며, 박람회가 끝난 후에는 우리에게 동물의 고통과 육식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매우 유용한 자료들을 주기도 했다.



제네바 국제 발명 박람회

일주일 후 제네바에서 ‘국제 발명 박람회(International Inventions Fair)’가 열리자 우리는 일요일에 전시장을 방문해 많은 방문객들과 참가자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했다. 말레이시아, 포모사,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이탈리아 등 세계 전역에서 이 행사에 참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프랑스어 전단을 나눠 주고 부스 참가자들에게는 대부분 영어 전단을 돌렸다. 참관객들은 호기심도 많고 생각도 개방적이어서 전단을 기쁘게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전단을 받는 즉시 읽기 시작했다.

제네바 국제 도서전

우리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린 국제 도서전에서도 부스를 빌렸다. 보통 12만 명의 방문객들이 몰려드는 이 행사에 세 명의 프랑스 동수들이 와서 전단 배포와 행사장 촬영을 도와주었다. 이 밖에 두 팀으로 나뉘어 행사장 출입구에서 전단을 나누어 준 덕분에 많은 방문객들이 전단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부스는 규모는 작았지만 즐거운 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모았다. 한 사저가 크게 확대해 가져온 ‘대안적인 삶’ 제목이 부스 정면에 붙은 가운데 많은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과 견본책자의 사진에 매료되었다. 제네바가 국제 도서라는 점을 고려해 우리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된 전단과 견본책자를 배포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몇몇 영성 단체들과도 우호적인 교류를 나누었다. 그 중에서 ‘평화의 말씀(The Word of Peace)’이라는 단체 회원들은 우리 부스를 수차례 방문했으며 우리가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또 유대교 서적과 종교용품을 파는 영성 부스 오른쪽에 대형 이슬람교 부스가 자리를 잡은 가운데 무슬림 여성들이 이슬람교 서적을 판매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자칫 마찰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가 친구가 됐으니 아주 좋은 안배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계 평화의 축소판을 발견하곤 매우 기뻐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안 마을(Alternative Village)’이라는 구역도 마련되었는데, 그곳의 거의 모든 방문객들이 우리 전단을 받았다. 여기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 이 ‘마을’ 대부분의 부스는 인도주의적이고 생태 보호 및 건강 지향적이어서 매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관람객들 역시 우리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채식주의 · 동물의 고통 · 육식이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등에 관한 인쇄물을 한 상자 가득 가져다준 스



위스 채식 협회 회원 두 명은 하루 동안 우리와 함께 전단을 나눠 주기도 했다. 우리는 그들이 가져온 흥미로운 자료를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탁자 위에 두면서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게 되길 희망했다.

수많은 학생들도 우리 부스를 방문했고 전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채식을 하고 싶지만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한 할머니는 손녀가 동물들이 고통 받는 걸 원치 않아서 육식을 거부한다고 말해 주기도 했다.

우리 부스의 맞은편에는 만년필을 판매하는 부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예쁜 두 명의 아가씨들은 도서전 5일 동안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끝없는 축복을 받았다. 이 아가씨들이 우리의 점심 식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에 우리는 음식을 좀 나눠 주면서 먹어 보라고 권했고 견본책자도 건넸다. 파리에 살고 있는 그들이 파리 센터에 연락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채식 협회로부터 받은 20페이지 분량의 채식 요리법을 그대로 복사해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무료 채식 요리법을 받고 기뻐했으며 우리가 제공한 비스킷과 채식 샌드위치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 부스에서 제공하는 채식에 대한 정보 외에 명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어했다.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이 전단과 견본책자를 가져갔으며, 일부는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모든 참가 부스들이 토론회를 한두 차례 열 수 있었는데 우리는 두 차례 개최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스승님의 강연 DVD가 상영되었고 두 번째엔 프랑스어 자막이 새로 추가된 '진정한 영웅'이 상영되었다. 두 차례 모두 반응이 좋아서 강연이 끝난 후 청중들은 채식과 영적 수행에 관해 많은 질문을 했으며 우리가 제공한 간식을 즐겼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고 5일간의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사람들 틈에서 전단을 돌릴 때면 기운이 떨어졌지만 부스에 돌아와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다 보면 잠시 후 기운을 되찾곤 했다.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린다! ✨

이탈리아

신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탈리아를 빛낸다

베틀나 아당크 사저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7일 이탈리아와 스위스, 프랑스 동수들이 로마에서 열린 '전국 채식 박람회(National Vegetarian Fair)'를 위해 함께 모였다. 동물 보호소, 동물 실험 반대 단체, 로마 채식 연맹 등 다양한 동물 보호 단체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의 고통을 감소시키자는 하나의 목적으로 이번 행사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에 참가했다.

박람회 전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하기 위해 로마를 누볐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번잡한 거리에 위치한 우리 호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점심시간 동안 명상을 하기로 했다.

명상을 하던 중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들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다. 원래 그날 아침에 젊은 사람들에게 전단을 배포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일러서 많이 마주치지 못했던 까닭에 우리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얼른 채비를 갖추고 손에 전단을 들고 호텔 밖으로 뛰어나갔다.

거리에 나와 보니 쿵광거리는 음악 속에서 청년들이 춤추고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는 광경이 펼쳐졌다. 알고 보니 이것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행진이었다. 이것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돌리기에 적합한 기회일지 확신이 안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매우

친절하다는 걸 알았고 선입관 속에 갈등하는 동안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필사적으로 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복잡한 인파 사이로 움직이며 많은 전단을 돌렸다.

저녁 명상을 마친 후 우리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채식 박람회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행사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까닭에 나무 아래 좋은 장소를 잡을 수 있었다. 동수들의 숙련된 솜씨 덕분에 아름다운 부스가 만들어져서 제때 맞춰 첫 번째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대안적인 삶’ 대형 포스터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엘리트 채식주의자’ 명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듯했다.

일부 동수들이 부스에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 주는 동안 다른 동수들은 박람회장을 계속해서 돌면서 전단을 배포했다. 우리 부스에 들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채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채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이탈리아 예비 입문자는 열성적으로 우리 일을 도와주었다. 스승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열성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저의 얼굴은 스승님의 축복으로 빛이 났으며 사람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사람들은 주로 채식과 채식 식품을 살 수 있는 곳에 대해 물었으며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면서 새로 만들어진 이탈리아 관음법문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할 수 있어 기뻐했다.

스페인에서 막 돌아온 이탈리아인 태극권 선생님은 일주일 전에 이미 스페인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스승님의 불찬 테이블을 구입하고 자기 제자들에게 나눠 줄 전단도 요청했다. 이어서 스페인에서 스승님의 강연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한 여성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과 성 프란체스코의 이름이 채식주의자 명단에 들어 있는 걸 본 한 이탈리아 여성은 교회에 비치할 전단을 부탁했다.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우리는 박람회 주최측과 참가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며 그들 대부분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 사람들이 매우 헌신적이고 긍정적이어서 박람회장은 고양된 분위기로 충만했다. 이 기간 동안 축복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

슬로바키아

열성적인 전단 배포 활동이 열렬한 환영을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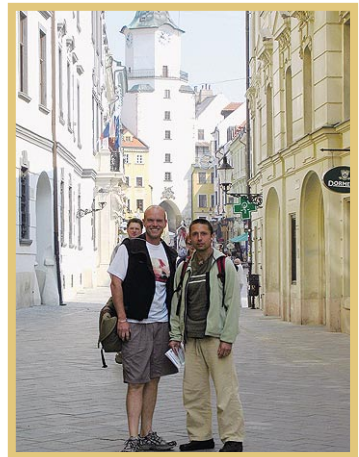
라파엘라 다고스티노 사저/ 영국 (원문 영어)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4일 저녁 여러 국적의 동수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에서 만났다. 신의 은총을 가득 안고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에 스승님의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동수들은 비엔나에서 차로 1시간 만에 도착한 후 시내 중심지까지 몇 걸음 안 되는 곳에 차를 주차했다.

브라티슬라바는 다른 유럽의 수도만큼 크지는 않지만 동유럽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다. 신의 은총으로 현지인 두 사람이 우리 팀에 합류했는데, 그 중 한 명은 방편법 수행자였다.

우리는 여러 조로 나뉘어 그 나라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구(舊)시가지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첫째 날 몇몇 동수들이 생태 협회(Ecological Society)와 시립 도서관들을 방문하는 동안 다른 동수들은 주요 광장들과 주차장, 쇼핑몰과 실내 시장, 버스 정류장, 건강 생활용품 상점들을 돌았다.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전단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택시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한 택시는 우리를 뒤쫓아 와 전단을 더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는 시내에 두 군데밖에 없는 채식 식당도 방문했는데 그 중 한 곳에선 적어도 30명은 되는 듯한 사람들이 길거리까지 길게 늘어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멋진 식당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고 실내에도 테이블마다 전단을 한 장씩 두었다. 놀랍게도 식당측에서는 카운터에 전단 한 묶음을 통째로 비치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우리는 비엔나 센터로 돌아가 명상을 통해 ‘충전’을 한 후 다시 한 번 먹을 것과 나머지 전단을 차에 실은 후 다음날 브라티슬라바로 돌아가 전단 배포 활동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대학과 병원에서 전단을 나눠 주었으며 대규모 주택단지를 찾아가 우편함에 전단을 집어넣었다. 이틀간의 이번 활동 내내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고 스승님의 무한한 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 수도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데다 매우 우호적인 브라티슬라바를 다시 한 번 방문해 보다 많은 전단을 배포하길 기대하고 있다. ★

벨로루시

벨로루시에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지다

헝가리 뉴스그룹 (원문 헝가리어)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Minsk)를 방문해 그곳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마음먹은 헝가리 동수 세 사람은 벨로루시어로 된 3만 6천 장의 전단을 준비해서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29일 기차를 타고 벨로루시 여행을 시작했다.

국경을 넘을 때 검문을 받을까 봐 걱정되기도 했지만 신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짐은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무사히 통과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검사를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상관없는 상태였다.

벨로루시에 도착한 후 우리는 대부분 지하도와 지하철 입구에서 전단을 나눠 주었다. 가는 곳마다 거의 몇 분 간격으로 경찰과 군인들이 우리를 검사했다. 사실 벨로루시에서는 어떤 종류의 전단도 배포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전단 내용이 정치와 아무 상관없이 종교와도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몇몇 경찰들이 배포를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뒤로 가면서는 점차 우리의 존재가 알려져 일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우리는 가져온 전단을 모두 배부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전단을 받았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읽고 집으로 가져갔다. 몇몇 사람들은 스승님의 메시지에 고마워하면서 벨로루시에 다른 채식주의자들이 있는지, 어디에서 채식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들을 묻기도 했다. 우리는 영어와 빈약한 러시아어를 섞어 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들의 이해를 도왔다.

벨로루시에서는 정교회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스크에 있는 큰 교회를 방문해 많은 교인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었다. 전단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것이 신의 메시지이며 신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 여성은 전단을 챙겨 가 교회 안에서 나눠 줬으며 또 한 여성은 혹시 작업을 도와줄 노인들이 필요한지 물어보기도 했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우리는 벨로루시에도 채식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성 단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신분을 숨겨야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긍정적인 사회 운동이었다. 벨로루시에서는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흔한 일이고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음악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이에 평화롭게 저항했다. 그 중 많은 이들이 고기도 먹지 않아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만난 것에 무척 기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2천 장의 전단과 ‘대안적인 삶’ 티셔츠를 몇 벌 나눠 주었다.

이 젊은이들은 이미 PETA(완전 채식을 권장하는 국제적 동물 권리 보호 단체)에서 여러 차례 전단을 받아 배부한 적이 있었다. 그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도 관심을 보여서 우리는 러시아어로 된 견본책자들을 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다.

스승님의 보호 덕분에 이런 삼엄한 나라에서도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려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

네덜란드

지혜를 활용해 ‘대안적인 삶’의 복음을 전하다

암스테르담 뉴스그룹 (원문 네덜란드어)

“머리를 쓰면 다리를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은 네덜란드에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으로, 상식을 이용해 일을 하면 몸이 고생하지 않고도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네덜란드 동수들은 이웃들뿐 아니라 나라 곳곳과 외진 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러기엔 엄청난 비용과 시간,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단을 배포할 방법에 대해 심사숙고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회를 모색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가장 외진 지역의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사람들에게까지 스승님의 전단을 전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RAI 컨벤션 전시 센터(이곳은 1999년 스승님이 네덜란드에서 강연회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다.)에서 열리는 ‘가정용품 박람회(Household Fair)’는 네덜란드 전역의 사람들이 참관하러 오는 큰 행사 중 하나이다. 보통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이 박람회에 신상품을 보려는 사람들이 수천 명 몰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에 이곳을 찾아가 입구에 서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다. 사람들을 가득 실은 버스들이 한꺼번에 도착할 때면 전단을 나눠 주는 속도가 밀려드는 인파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단을 받기 위해 우리를 둘러싸기도 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또 다른 장소는 스키폴(Schiphol) 국제공항의 단기 주차장이었다. 친구나 친지, 가족들을 공항에서 배웅하거나 마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차해야 하는 곳이다. 두 층으로 이루어진 주차장에 수천 대의 차들이 주차해 있어서 우리는 각 차량의 와이퍼에 ‘대안적인 삶’ 전단을 꽂아 두었다. 일을 마친 후 주차장을 돌아 나오면서 모든 차에 전단이 꽂혀 있는 광경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이 밖에 암스테르담의 식당과 호텔, 카페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대형 도매 상점의 주차장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했다.

네덜란드 ‘에그몬트 안 제(Egmond aan Zee)’라는 해변 마을은 봄철과 여름철, 특히 여름철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여기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두 명의 동수들은 물건을 팔 때마다 ‘대안적인 삶’ 전단을 봉지에 같이 넣어 주곤 했다. 이 역시 전국에 전단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

레소토와 짐바브웨

신의 뒤뜰 주민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다

레소토

레소토(Lesotho)는 사방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내륙 국가이다. 이곳에 신의 메시지인 ‘대안적인 삶’을 전하고자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센터 동수들은 차를 타고 레소토의 수도인 마세루(Maseru)로 향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4일 저녁에 도착한 동수들은 다음날부터 영어로 된 전단 약 8천 장을 배부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레소토의 바소토(Basotho) 족 사람들은 매우 개방적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원문 영어)



‘바소토의 모자’
-레소토의 수도 마세루의 표식.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고 우호적이었다. 거의 모든 행인들이 전단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순찰 중인 경찰도 있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단의 내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동수들은 채식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한편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스승님의 가르침도 소개하고 견본책도 건넸다.

전단을 받은 한 주민은 자기도 채식을 하고 있는데 채식을 한 뒤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동수들을 만나게 된 것에 기뻐했다.

어떤 사람은 동수들이 차에서 전단을 더 많이 꺼내는 것을 보고선 차를 멈추고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당뇨 환자로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인 그는 견본책자와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받은 후 “감사합니다. 이진 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보내 준 분들입니다.”라고 말했다.

동수들이 이미 여러 해 동안이나 채식을 하고 있다고 알려 주자 많은 주민들이 채식을 해도 그렇게 건강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몇몇 주민들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받고 동수들의 설명을 들은 후에는 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영혼도 고양되어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대안적인 삶’의 내용에 대해 묻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



짐바브웨

‘대안적인 삶’의 전단을 나누기 위한 두 번째 목적지는 짐바브웨(Zimbabwe)였다.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1일 목요일 비행기를 타고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Harare)에 도착한 동수들은 5월 13일 토요일까지 이 나라에 머물렀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차를 빌려 주는 서비스 센터에 갔을 때 담당자는 차가 한 대밖에 안 남았다면서 동수들에게 운이 좋다고 말했다!

시내 중심가에서 전단을 나눠 주기 좋은 장소를 찾고 있을 때 아름다운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분수 정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은 6개의 출입구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기엔 안성맞춤이었다. 이에 따라 30분 만에 1천 장의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줄 수 있었으며 경찰을 비롯한 주민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전단을 받아 갔다. 자기에게도 전단을 달라고 주장해서 받아 낸 아이들은 함박웃음에 얼굴이 밝아졌으며 다시 돌아와 전단을 더 받아 가기도 했다! 전단을 받기 위해 몇몇 주민들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일부러 길을 돌러오기도 했으며 다들 매우 고마워했다.

다음날 아침 동수들은 하라레의 극빈 지역에 있는 청과 시장에 들러 가게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었다. 시장의 한 젊은이가 동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인간의 먹을 것이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자 우리 동수가 동물의 삶과 채식에 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었다. 이 토론으로 우리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으며 그 젊은이조차 우리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동수들은 그곳의 주요 신문사인 『헤럴드(The Herald)』사와 『데일리 미러(The Daily Mirror)』사를 방문해 각 신문사의 책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중요하고도 유익한 정보를 실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안적인 삶'과 같은 기사를 많이 보도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했다. 그들은 기꺼이 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다음날에는 버스 터미널 맞은편 거리에서 활동을 펼쳤다. 지나가는 한 남자가 채식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크게 소리치면서 전단 받기를 거부하자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 전단을 받아 가는 결과를 낳았다. 큰 관심을 가진 한 프리랜서 기자는 동수들이 전단을 나눠 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까지 했으며 이 활동을 기사로 내고 싶어했다.

한 남성은 전단을 받은 후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는 딱 맞는 시기에 왔습니다. 신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말했다. 또한 어떤 여성도 매우 기쁘게 전단을 받아들곤 동료들에게 갖다 줄 전단을 많이 가져갔으며, 신실해 보이는 한 신사도 마을에 나눠 줄 전단을 챙겨 갔다. 이렇게 해서 모두 5천 장의 '대안적인 삶' 전단이 배포되었다. 우리는 약국, 인터넷 카페 등 여러 곳에 견본책자를 비치해 두기도 했다.

동수들은 신의 메시지인 '대안적인 삶'을 전한 것에 매우 기뻐했으며 '사랑의 마음으로 이 행성의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는 것'임을 깨닫고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큰 힘을 얻었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토고

많은 이들에게 자비로운 삶을 일깨워 준 해변에서의 하루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16일 일요일 로메 센터 사형사저들은 로메 해변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다.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 해변에는 부활절인 일요일을 맞아 더욱 많은 가족과 어린이들이 소풍을 나와 있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 우리는 이번 활동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과 뉴스잡지를 나눠 주고 동수들이 준비한 채식 음식도 함께 나눠 줄 계획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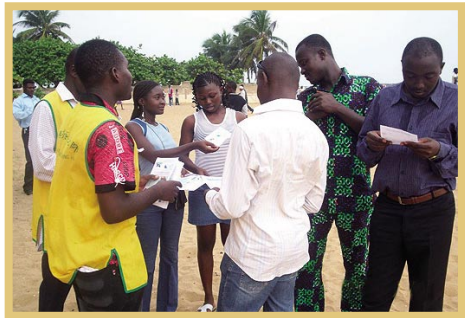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지역 라디오 방송국 두 곳과의 인터뷰도 잡아 놓았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 그 중 한 인터뷰는 이 지역 언어인 에웨어(Ewe)로 진행되는 방송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또 다른 인터뷰는 프랑스어로 진행되었다.

일요일 단체명상을 마친 뒤 우리는 두 조로 나뉘어 한 조는 당초 계획한 채식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한 조는 해변을 청소하며 행사장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뉴스잡지 300권과 전단 1천 장도 준비되었다.

일요일 오후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부스를 세 곳 설치해 한 곳에서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잡지와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으며, 다른 하나는 오락 부스로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스승님의 음악과 지역 음악을 내보내 행사에 ‘양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부스에서는 채식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주방 팀은 열 가지가 넘는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고기 위주의 향토 음식을 채식 재료로 대체해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게 아주 쉽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몇몇 사형사저들이 해변 곳곳에서 ‘대안적인 삶’의 소식을 나누면서

로메 뉴스그룹 (원문 프랑스어)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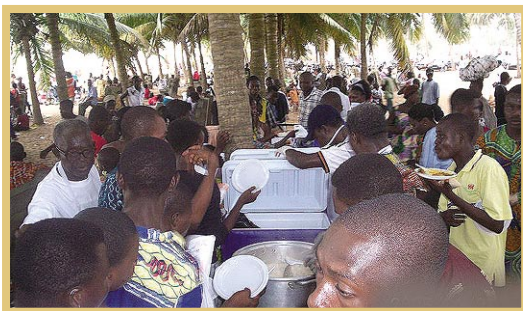
사람들에게 우리 부스를 방문하도록 초대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 협회와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한 후 사람들에게 줄 서서 뉴스잡지와 '대안적인 삶' 전단, 채식 음식을 받아 가게 했다. 스승님의 자비와 축복 속에 이 과정은 내내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들은 채식의 풍미가 마치 고기 음식의 맛과 비슷하며 오히려 그보다 더 맛있다는 점에 놀라워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진짜' 음식이 아니라고 여기는 풍습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공한 채식 요리를 보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고 선 모두들 놀라워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채식 요리를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 선생님은 이날 해변에 와서 친구에게 빌린 채식에 관한 책을 읽으며 다른 아픈 친구에게 도움이 될 채식의 효능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채식을 해 온 그의 아내는 항상 그에게 채식을 하도록 권했지만 그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날 해변에서 어떤 아이의 손에 들린 스승님의 뉴스잡지를 보고 그 책을 읽게 된 것을 운명이라고 여긴 그는 우리 부스를 찾아와 채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채식 요리도 맛본 후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찾아와 동료 교사들에게 나눠 주기 위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보다 많이 요청했다.

해변에 온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오긴 했지만 우리가 제공한 채식 음식을 기꺼이 받아 갔으며 음식을 정말 맛있어했다. 그 중에는 우리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가져다주고자 우리 음식 부스를 세 번이나 왔다 간 사람들도 있었다.

채식 음식을 먹고 뉴스잡지를 읽은 몇몇 사람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좀더 알기 위해 우리 안내 부스를 찾아왔다. 행사가 끝나 갈 무렵 우리는 모든 물건을 모으고 원래대로 정리해 스승님이 가르치신 대로 해변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했다. 그 다음날 다시 몇몇 동수들이 해변에 가서 행사장과 그 주위를 깔끔하게 치웠다.

이번 활동을 성공리에 끝내면서 큰 힘을 얻은 로메 센터 동수들은 로메에 있는 유명한 모든 해변과 교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배포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변 다섯 곳에서 한 조당 1천 장의 전단을 배포했다. 토고의 독립기념일인 4월 27일과 노동절 전날인 4월 30일, 노동절인 5월 1일에 이 활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스승님의 격려와 은총으로 해변에서 많은 토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캐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다

토론토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3년(2006년) 1월 9일에 스승님의 '대안적인 삶' 소식을 받은 후 토론토 센터는 토론토에 있는 한 가정에 전단 1장씩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도시의 모든 지역이 나온 큰 지도를 센터에 걸어 놓은 후 동수들은 의논을 거쳐 조를 짜서 토론토의 각 지역에 나가 전단을 배포한 후 배포가 끝난 지역을 지도에 색칠했다. 이렇게 성과가 차츰차츰 모이게 되자 지도 전체가 다 채워지게 되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캐나다의 많은 지역들이 전단을 직접 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토론토 센터는 우편물을 직접 배달하는 '액션팩(ActionPak)'과 '오픈 앤드 세이브(Open & Save)'라는 두 회사와 협력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다른 단체의 전단과 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했다.

지금까지 337,100장의 전단이 인쇄되었으며, 그 중 137,100장이 동수들의 손에 의해 온타리오 내 17개 도시의 가정에 배포되었고 10만 장이 '액션팩' 회사를 통해 벽지 12개 도시에 발송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장은 '오픈 앤드 세이브'를 통해 매니토바(Manitoba),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뉴펀들랜드(Newfoundland), 래브라도 반도(Labrador), 노바스코샤(Nova Scotia), 프린스 에드워드 섬(Prince Edward Island), 서스캐처원(Saskatchewan) 등 캐나다 나머지 6개 주에 전달되었다.

동수들은 가정집을 목표로 삼는 외에 마을 회관과 채식 식당에서도 전단을 나눠 주었다. 일부 동수들은 대형 쇼핑몰과 번잡한 거리에서 전단을 돌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조깅을 하던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 전단을 받아 갔으며 버스에 있던 한 승객은 이제 막 버스에 오른 동수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며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고선 동수가 전단을 건네자 자기에게 줄 게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 전단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한 장씩 받으려고 아우성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대안적인 삶' 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길을 건너면서도 전단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른 종교에 관한 전단을 돌리던 한 노부인은 우리 전단을 읽어 보고선 바로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며 더 많이 요청했다. 동수 가족 중 채식에 반대하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던 사람들도 이제는 채식의 개념에 좀더 마음을 열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채식을 할 준비가 안 되었지만 채식에 관한 긍정적인 뉴스에 이전보다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입문한 가족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 알려 주기까지 한다.

스승님의 사랑 어린 지시에 따라 현재 관음 웹사이트에서 채식 요리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채식을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웹사이트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동수들이 채식을 소개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이처럼 스승님은 언제나 모두를 위해 세심한 곳까지 보살펴 주신다.

각 전단에는 모든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큰 사랑이 담겨 있다. 동수들은 이 아름다운 컬러 인쇄물을 한 장씩 돌릴 때마다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알리고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이 기회는 또한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보다 자비로워지고 언제나 우리의 본래 목적을 일깨워 줘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준다.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나누는 일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미국

메릴랜드

존스 홉킨스 대학 봄 축제에서 생명 존중과 채식의 이상을 홍보하다

메릴랜드 뉴스그룹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메릴랜드 동수들은 존스 홉킨스 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 열린 연례 봄 축제에서 두 개의 전시 부스를 빌려 채식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렸다.

이번 축제에서 동수들은 채식 바비큐, 볶음 국수, 튀긴 만두, 찐만두, 쿠키, 채식 고기 구이 등 다양한 채식 음식을 제공하는 한편 스승님의 법상과 그림, 만세등을 전시하고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방영해 많은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다. 계속해서 내린 비로 인해 사람들이 많진 않았지만 많은 방문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우리의 채식 음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식당’의 위치를 알고 싶어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 다음 이틀 동안 계속해서 찾아와 같은 채식 음식을 사가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발길을 멈추고 ‘대안적인 삶’ 포스터를 읽으며 내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다. 이미 채식을 하고 있거나 채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도 많았지만 한결같이 채식 음식을 만드는 법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한 맛있고 다양한 채식 음식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손님들은 음식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나 스승님의 강연에 빠져 오랫동안 서서 강연을 시청했다. 비조차 그들 영혼의 갈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 중 대학교의 안전요원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 시간 동안 강연을 보았으며 나중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보기도 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축제에 우리 외에 채식을 홍보하는 단체가 두 곳 더 있었던 것에 마음이 흐뭇해졌다. 다른 단체들도 동물을 보호하는 이상에 헌신적인 것을 보니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



미주리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보람 있는 시간

미주리 뉴스그룹 (원문 영어)

우리의 사랑을 동물들에게 넓히고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의 이념을 널리 알리라는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미국 미주리 센터 동수들은 '영적 구도자 엑스포(Spiritual Seeker Expo)'와 2006년 '지구의 날' 축제에 참여했다. 또한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신문 광고로 싣고 몇몇 주요 도시에 배달되는 신문에 전단을 끼워 넣었으며 거리와 대학 캠퍼스에서 전단을 배포하고 도서관과 상점에 붙였다.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9일, '영적 구도자 엑스포'가 세인트루이스 사우스웨스트 홀리데이 인(St. Louis Southwest Holiday Inn)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 연이어 네 번째로 참여한 동수들은 올해는 '대안적인 삶' 전단을 중점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우리는 부스에 스승님의 만세등과 책, DVD, 비디오 테이프를 전시하는 한편 채식 고기를 이용한 간단한 음식 두 가지를 준비해 시식회도 열었다. 요리를 맛본 많은 방문객들이 채식 음식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요리법에 대해 문의했다. 동수들은 채식 시식회를 개최하는 외에 스승님의 가르침도 소개했으며 관심 있는 방문객들과 영적인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그러는 가운데 올해 방문객들이 채식 음식을 매우 좋아하는 것은 예년과 같았지만 관음법문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는 보다 열성적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06년 4월 23일 동수들은 세인트루이스의 포레스트 공원(Forest Park)에서 열린 2006년 '지구의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날' 행사에 참가했다. 이른 아침 행사장으로 출발하는 참에 장대비가 쏟아졌다. 행사가 야외에서 열리기 때문에 동수들은 맑은 날이 되도록 해 달라고 신께 기도한 후 스승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다. 가는 길 내내 비가 왔지만 세인트루이스 경계로 들어서는 순간 비가 멈추었고 포레스트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찬란한 햇빛이 '지구의 날' 행사에 처음 참여하는 우리를 반겨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책과 사진, 비디오테이프, 전단이 진열된 우리 부스 앞에 멈춰 서서 스승님의 가르침과 채식에 대해 물었다. 관심을 보이는 방문객들에게 동수들은 DVD '진정한 영웅'을 나누어 주었다. 몇몇 청소년들도 우리 부스를 찾아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스승님의 뉴스잡지 중 한 호를 정말 좋아한 아홉 살쯤 되는 한 소녀는 그 잡지를 갖고 싶어하면서 집에서 읽겠다고 약속했다. 동수들은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채식에 하고 있고 영

적 가르침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문자들은 또한 탁자에 놓인 큰 바구니에서 '행운의 과자'를 집어 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과자 속에 든 스승님의 감로법어를 읽었는데, 여덟 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는 자기 남동생에게 감로법어를 소리내어 읽어 주기도 했다.

그 다음주인 4월 29일에는 세인트루이스 도서관에서 비디오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영적인 수행에 대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남아 방법법을 배웠다. 매우 입문하고 싶어하는 한 청년은 4년 전 한 엑스포에서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받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때부터 수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입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입문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그 다음주에 센터에 와서 단체명상에 참여했다. ★

캘리포니아

세상과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다

샌프란시스코 센터 (원문 영어)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28일과 29일, 30일 사흘 동안 샌프란시스코 센터는 새너제이(San Jose) 채식 식당과 함께 '새 생활 엑스포(New Living Expo)'에 참여했다. 엑스포 관람객과 참가 전시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스 중 하나였던 우리 음식 부스는 행사 기간 내내 즉석에서 다섯 가지의 맛있는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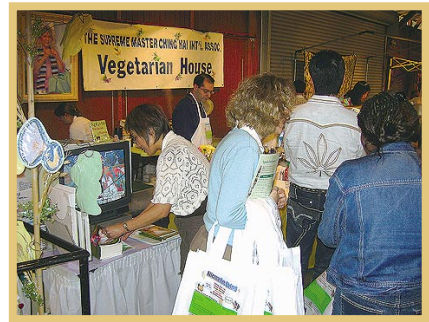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리를 만들어 제공했다. 손님들은 채식 음식, 그 중에서도 콩 고기의 맛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토요일은 행사가 시작된 날이라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다.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행사 내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 중 하나는 보통 육식을 하던 한 신사가 채식 음식으로 바꾸고 싶어한 일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와서 시식 하고선 나중에 세 번이나 우리 부스를 찾아왔다! 채식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것에 놀란 그는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명상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스승님과 관음 법문에 대해 묻은 그는 몇몇 동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한 후 견본책자와 잡지를 가져가더니 결국 그 다음 주말에 방편법을 배우러 오는 열성을 보였다.

이번 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한 한 남자는 자신의 아름다운 영적 체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는 우리 부스를 쳐다보았을 때 용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선 경악한 나머지 그 즉시 우리 부스를 찾아와 우리 명상법에 대해 물었던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중점적인 행사 중 하나는 '대안적인 삶'의 내용이 인쇄된 가방을 방문객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우리는 우리 부스를 떠나는 방문객들에게 이 가방을 선물로 나눠 주었는데,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가방에 소지품을 넣어 어깨에 메고 박람회를 구경하는 게 보였고, 엑스포가 끝나고 며칠 후에도 바깥에서 그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 가방들이 사람들에게 좀더 채식을 할 것과 채식의 이로움을 일깨워 줄 것이 분명하다.



‘새 생활 엑스포’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단을 계속해서 배포하는 활동도 큰 성과를 보였다.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변화한 곳에서 직접 전단 나눠 주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라디오 방송에 광고 내보내기, 어울락 주간지에 광고 실기, 서점·도서관·건강 식품점 및 기타 상점에 전단 배포하기, 우편을 통해 전단을 대량 발송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대안적인 삶’의 소식을 알렸다. 이 밖에 전단 내용을 1년 동안 2시간마다 12초씩 TV 광고로 내 보기도 했다.



최근의 노력에 대해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오고 있다. 예를 들면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아주 좋아한 한 교사는 자기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다량의 영어 전단과 소량의 중국어 전단을 요청했으며 나중에 고마운 마음에 동수를 껴안기도 했다. 또 한 채식주의자는 우리의 노력에 고마워하면서 너무 멋지다고 소리쳤다! 그녀 또한 나중에 다른 이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많은 양의 전단을 요청했다.

5월 20일 일요일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이곳에서 열린 ‘아시안 전통 문화 거리 축제’에서 부스를 하나 얻었다. 몇 달 동안 비가 내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린 끝에 처음으로 개인 주였다. 일기 예보에서는 축제 당일에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기적적으로 비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이 소중한 기회를 활용해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책자와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다.

이 진기한 행사는 주로 중국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샌프란시스코의 선셋 구역(Sun Set District)에서 열렸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전단이 많이 나갔다. 중국어 일간지에 실린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광고에서 스승님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 우리 부스를 알아본 몇몇 사람들은 견본책자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책자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 홍콩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온 한 여성은 홍콩에 있을 때부터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또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의 부스를 발견하곤 매우 반가워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우리 단체를 만나게 된 것에 흥분하면서 방편법을 배우고자 열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센터의 위치를 알려 주고 방문해 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개빈 뉴섬(Gavin Newsom)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뜻밖의 방문을 해 우리 전단을 받고 매우 좋아했다.

우리에게 이 세상과 내면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스승님의 끝없는 축복을 받아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 맺길 희망한다. ★

멕시코

많은 멕시코인들이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다

멕시코 각 지역 센터 연합 보도 (원문 스페인어)

동물을 보호하고 자비로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내용의 깨우침이 담긴 사랑하는 스승님의 공지를 읽고 크게 기뻐한 멕시코 각 지역 동수들은 그때부터 기회를 보아 멕시코 각 주를 여행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했다. 이 경험을 통해 모든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텍스코코

교사인 한 사형은 텍스코코(Texcoco)의 COBAEM 치말우아칸(Chimalhuacan: 고등학교와 유사함)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사형이 채식의 이로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 모두들 적극적으로 전단을 받아 갔다.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채식에 관심을 보이며 채식 요리법을 요청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자기 친척들도 이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학교 선생님들은 전단에 나온 채식의 영양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채식 요리 강좌를 만드는 데 동의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학교들도 이러한 개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님을 받아들이고 보다 고귀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멕시코시티 센터를 출발해 이달고(Hidalgo) 주의 수도인 파추카(Pachuca) 시에 도착한 우리는 이곳의 다른 동수들과 결합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다. 주민들은 이런 정보를 얻게 된 것에 놀라움과 기쁨을 나타냈으며 채식을 시작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많은 질문을 하면서 우리 센터의 위치에 대해서도 물었다.

과달라하라(Guadalajara) 시에서 우연히 만난 한 동수는 우리에게 지원과 환대를 베풀었다. 전단을 돌리는 과정에서 만난 많은 착한 사람들은 동물과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특히 어린이들의 반응이 매우 인상 깊었다. 아이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달려와서 전단을 요청하고 열심히 읽었다. 그 중 몇 명은 학교 친구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더 많은 전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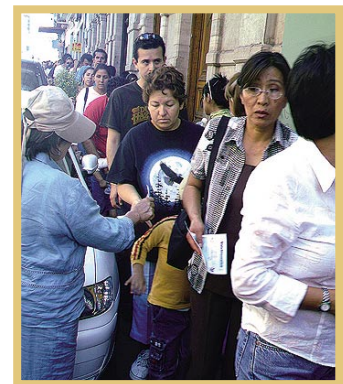
이어서 우리는 대단한 장관을 사랑하는 고대 신전으로서 이제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된 테포스틀란(Tepoztlan)과 모렐로스(Morelos) 주의 쿠에르나바카(Cuernavaca)로 향했다. 활기 넘치는 군중들과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 덕분에 이날은 정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과 명상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으며 우리 센터를 방문하고 싶어했다.

가는 도중에 우리는 멕시코시티에서 전단을 배부했다. 몇몇 고등학교와 요가 센터에서 이 전단을 크게 받기며 동물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나타냈다.



과나후아토

과나후아토(Guanajuato)는 역사가 오래된 문화 도시이다. 많은 도시의 경우 거리에서 전단을 배부하려면 허가가 필요했는데, 과나후아토 역시 그 중 하나였다. 우리가 전단을 배부하고 있을 때 다가와서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심문하던 경찰은 이 전단을 나눠 주는 목적에 대한 동수의 설명을 듣고 전단을 읽어 보고선 우리에게 편하게 계속 전단을 배포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우리가 만난 다른 경찰들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웃어 주며 채식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미초아칸 모렐리아

미초아칸(Michoacan) 주의 주도(州都)인 모렐리아(Morelia)는 관광 및 학술 중심지로 볼 수 있다. 장엄하고 역사가 오래된 이곳 시청은 줄곧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손꼽혀 왔으며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건물이기도 하다. 모렐리아는 1991년부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우리는 모렐리아 시청과 동물원에서 전단을 나눠 주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전단을 받아 갔다. 우리에게 무슨 내용에 대한 것인지를 묻은 한 남성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설명을 통해 이것이 채식과 자비심을 고취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줄 전단을 더 많이 요청했다.

우리는 스페인어로 된 전단 외에 영어 전단도 나눠 주었다. 한 관광객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묻기에 전단에 실린 우리 사이트를 가리키자 그는 이해하고선 고마워하며 우리를 떠났다.

할라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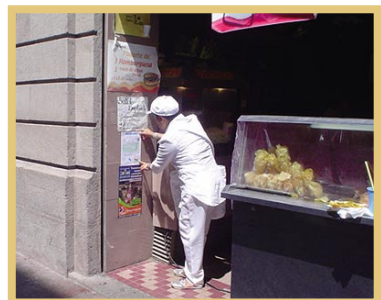
최근 할라파(Xalapa)의 동수들은 신의 안배로 눈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을 많이 나눠 주었다. 전단을 배포하는 동안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고 축복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운 느낌을 주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스승님의 크나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것이 중생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고 대중들에게 스승님의 성스런 가르침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할라파는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안배로 멀리서 온 이들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전단을 나눠 주었다. 이 귀중한 정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신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해했으며 채식 식당과 이 자료의 출처에 대해 질문했다.



산 루이스 포토시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i)는 멕시코 북부에 위치해 있다. 전단을 나눠 주는 동안 전단을 내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놀랍고도 반가웠다. 또한 전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아주 친절했다. 이에 이 전단이 아주 특별하고 스승님의 축복과 사랑의 힘을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집에서는 웃으면서 자기 집 문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과 벽에 전단을 붙이도록 허락해 주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스승님의 위대한 힘이 이 고귀한 활동을 축복하신 덕분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일하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낡은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고귀한 일을 할 때는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스승님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이 배포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항상 신을 생각하고 신의 힘을 믿어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름다운 전단 한 장을 만짐으로써 돌덩이 같던 마음도 부드러워졌고 가는 곳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사형사자들은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보다 도움이 될 방법을 배우기를 희망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이런 고마운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코스타리카

사랑으로 가득 찬 놀라운 모험

코스타리카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28일 코스타리카 센터는 코스타리카 대학에서 열린 음식 축제에 참가했다. 동수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행사 준비를 열심히 도왔다. 모두들 요리를 맡기도 하고 부스 설치와 장식,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 등의 역할을 맡아 계획했는데 사랑으로 가득 찬 놀라운 모험이었다. 동수들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동포들의 의식이 고양되고 그들이 우리 동물 친구들과 더불어 좀더 자유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부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동수들은 아름다운 빨간색 앞치마에 흰 모자를 쓴 모습으로 전단을 나눠 주었고 채식에 대한 설명을 맡은 사람들은 눈에 띄는 밝은 노란색 조끼를 입었다. 또한 군중들 속에서 전단을 나눠 주는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이 인쇄된 귀여운 티셔츠를 입고 일을 했다.

우리는 부스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다. 학생들은 우리가 제공한 음식이 그

토록 맛있는 것에 놀라워했다.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요리에는 맛있는 '아라카체(arracache)', '채소와 노란 콩을 넣은 타말레스(tamales)', '강낭콩 타말레스', '콩을 곁들인 저민 감자' 같은 여러 코스타리카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요리와 더불어 국제적인 요리를 곁들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두유도 포함시켰다. 사람들은 전통 요리든 국제적 요리든 고기가 들어가는 부분을 건강에 이로운 콩 제품으로 아주 쉽게 대체할 수 있고 그래도 맛에는 전혀 손색이 없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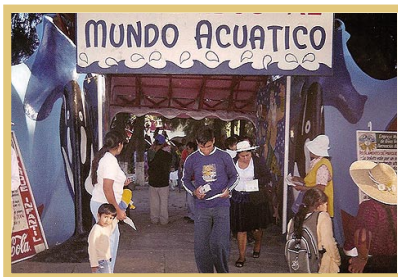
우리는 이 외에 대학 캠퍼스에서 약 1만 1천 장의 전단을 배포했는데, 모두들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아주 잘 받아들였다. ★



볼리비아

큰 축복을 받은 볼리비아

페루스크 카마르고 사저/ 페루 쿠스코 (원문 스페인어)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16일 일요일 사저 세 명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함으로써 볼리비아의 형제자매들에게 스승님의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볼리비아 여행에 나섰다.

6만 장의 전단이 담긴 무거운 여행 가방 때문에 여행 도중 어려움을 좀 겪긴 했지만 그때마다 축복이 우리와 함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저녁에 볼리비아에 도착한 우리는 그날 밤부터 배포 활동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친절

하고 기분 좋게 전단을 모두 받는 모습에 놀랍고도 기뻐다! 다음날에는 알토 라파스(Alto La Paz), 바호 라파스(Bajo La Paz), 오루로(Oruro) 등 도시의 대학교와 각급 학교, 시장, 거리, 사람이 붐비는 광장, 버스 정류장에서 전단을 나눠 주었다. 오루로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큰 장이 서는데 우리는 때맞춰 그곳에서도 전단을 배포할 수 있었다.

나중에 다른 동수들이 볼리비아에 도착하자 우리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기 위해 코차밤바(Cochabamba)와 산타크루스(Santa Cruz)로 향했다. 가는 곳마다 식생활을 바꾸고 건강을 이롭게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우리와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진리를 찾는 것에 관심을 보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즉각 깨닫는 열쇠』 무료 견본책자를 나눠 주고 '대안적인 삶' 전단에 나온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도록 권했다.





자바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이런 놀라운 노력을 계속하는 동안 즐거움과 깊은 만족감을 느꼈으며 이 아름다운 일을 정말 계속해 나가고 싶어졌다. ★

아르헨티나

우리는 정말 하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스그룹 (원문 스페인어)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지구의 의식 변화를 돕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센터 동수들은 전국적인 전단 배포 활동을 계획했다. 2월에 5만 장의 전단이 아르헨티나에 배포되었는데, 그 중 4만 2천 장이 수도에 배포되었고 나머지는 동수들이 사는 주에 배포되었다. 나중에 우리는 5만 장을 더 인쇄하기로 결정하고 페루와 칠레에서 온 사형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국 각지에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월부터 5월 초까지 아르헨티나 전 지역과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전단이 배포됐으며, 현재는 신문에 ‘대안적인 삶’ 전단 광고를 게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전단 배포 지점은 도심 한복판, 공원, 버스 정류장, 기차역, 지하철역, 공예 및 문화 박람회장, 각급 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동물원과 병원 입구였다. 원래 기차역 안에서는 전단을 배포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스승님의 말씀을 읽은 안전요원들이 역 안에서 배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심지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단을 나눠 줄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해 주기까지 했다. 우리는 이메일을 통해 전단 내용을 보내기도 하고 우편함과 자연 식품점, 동물 병원, 채소가게, 정육점에도 전단을 나눠 주었다. 채식 식당에 전단을 나눠 줬을 때는 주인이 우리의 적극적인 활동에 놀라움과 기쁨을 표하며 전단을 받았다. 제약실에서 일하는 한 사자의 남편도 자신이 꼭 방문해야 하는 환자들의 집에 전단을 보냈다. 이를 통해 암과 말기 병으로 고통 받는 상당수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육식으로 이름 높은 나라이긴 하지만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전단을 읽은 후 서서 동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스승님의 메시지에 동의하며 우리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축복해 주었다. 또한 친구들에게 갖다 줄 전단을 더 가져가기도 했다. 포사다스(Posadas)에서는 한 채식 단체가 전단 배포를 아낌없이 도와주었고, 북부에서는 채식을 하는 노인들이 이 고상한 일을 계속하도록 동수들을 격려해 주었다. 젊은 사람들과 어머니들도 기쁘게 전단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멘도사(Mendoza)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숙녀는 산타로사(Santa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Rosa) 시에서 동물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와 이상이 같다는 것에 기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물들을 돌보고 있는 한 여성 작가는 우리 전단이 아주 멋지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꼼꼼하게 전단을 읽는 것을 보니 힘이 절로 났다! 아이들은 전단 디자인을 좋아한 나머지 학교 친구들에게 나눠 줄 전단을 더 요청했다.

리오 쿠아르토(Rio Cuarto)와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 등 멀리 있는 도시에서조차 대단히 신실한 자연주의자와 채식주의자들이 주저 없이 전화를 걸어 와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묻고 우리 전단을 복사해 지인들에게 나눠 줘도 될지 허락을 구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과 더불어 채식 요리법과 채식 관련 자료, 채식 식당 목록, 그리고 그들의 관대함과 선한 마음에 감사하는 편지를 함께 보냈다. 이러한 일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일어났다. 완전 채식주의자인 한 간호사는 전단을 더 많이 인쇄해 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연구원들에게 나눠 주고 싶어했다. 그의 신실함과 사랑에 감동한 우리는 그에게 스승님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 방법을 수행하고 있다.

이 활동은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이치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전단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스승님의 사랑은 크고 또 깊다. 전단을 배포하면서 우리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했고 스승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전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기쁨으로 가득 찼다. ‘대안적인 삶’ 전단은 우리의 어린 형제들인 동물들을 구하는 도구이자 우리가 더욱 자비로워지고 사랑이 많아지도록 우리 가슴을 여는 방법이기도 하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



어울락

신의 고귀한 메시지가 북부 어울락 무역 박람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해지다

어울락 동수 (원문 어울락어)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 말 북부 어울락 무역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신의 안배로 지역 동수들은 이 박람회에서 부스를 열고 이 기회를 활용해 자비로운 생활 방식의 메시지가 담긴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다. 박람회 동안 동수들은 세 조로 나뉘어 한 조는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하고 다른 한 조는 요리를 하고 채식 요리법을 가르쳤으며 마지막 한 조는 방문객들에게 채식 음식을 대접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했다.

모두들 각자 맡은 일을 즐겁게 해내면서 모든 일에 신이 함께하심을 느꼈다. 신의 축복이 명확하게 나타나서 우리 부스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식사를 하기 전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법상과 그림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가진 덕분에 음식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었는데, 그 점은 그들의 즐거운 표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많은 손님들이 동수들의 세심하고 공손한 태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식사 후 많은 방문객들이 채식 요리법을 배우고 싶어했다. 동수의 설명을 듣는 동안 그들의 얼굴엔 빛이 났으며, 많은 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채식 식당의 위치에 대해 문의했다. 이번 박람회 동안 동수들은 대중들에게 사랑의 생활 방식을 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대중들은 ‘대안적인 삶’이라는 신의 자비로운 메시지를 잘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

태국

음식 박람회에서 펼친 사랑과 ‘대안적인 삶’ 홍보 활동

방콕 뉴스그룹 (원문 태국어)

무앙 통 타니 임팩트 아레나(Muang Thong Thani Impact Arena)에서는 해마다 식품 박람회가 열리는데, 수천 명의 국제 바이어와 수출입 관련 무역인들이 이 행사를 통해 태국 음식 회사와 사업을 할 기회를 갖는다.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20일과 21일에 열린 올해 박람회에서 방콕 동수들은 ‘주방장의 선택(Chef's Choice)’ 회사 옆에 아름다운 부스를 설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주방장의 선택’은 채식 통조림과 건조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우리 동수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 부스는 가장 유명한 냉동 채식 고기 회사 중 하나인 ‘요타(YOTA) 채식 식품’의 정면에 자리를 잡아 아주 운이 좋았다.

우리 부스에서는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스승님의 강연과 콘서트, 자선 활동, 재난 구호 활동이 담긴 DVD를 상영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우리에게 질문을 했다.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한편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었다.

보통 박람회 전시자들은 다른 사람의 상품을 홍보하지 않게 마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련인데, 스승님의 은총으로 올해에는 우리가 채식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요타 채식 식품 회사의 직원이 자기네 전단 옆에 우리의 ‘대안적인 삶’ 전단을 비치할 수 있도록 흔쾌히 수락해 주었다. 우리 사형사저들이 우리 부스 근처에서 전단을 나눠 주는 동안 요타 채식 식품 회사의 직원들은 콩단백과 글루텐을 주재료로 만들어진 맛있고 건강에 이로운 냉동 채식 식품을 요리했다. 믿을 수 없이 강력한 스승님의 축복으로 인해 우리 부스에는 온정과 사랑이 충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런 가운데 참관객들은 스승님의 포스터와 출판물, 비디오 등을 보거나 동수들과 이야기할 때 큰 감동을 받았으며 모든 동수들 또한 천국의 기쁨과 고요함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2006년 음식 박람회 활동에 참여한 방콕 동수들은 대중들과 함께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눌 기회를 주시으로써 보다 많은 동포들이 스승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또한 스승님의 성스러운 메시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 나가길 기대했다. ★

라오스

신의 사랑이 역경을 성공의 기회로 바꾸다

포모사 타오위안 뉴스그룹 종합 보도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4일, 포모사 동수 19명이 라오스에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주기 위해 출발했다. 동수들은 4일간의 여정을 위해 프랑스어와 라오스어로 양면 인쇄된 전단 7만 5천 장을 가져갔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내륙 국가인 라오스는 북쪽으로는 중국과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어울락,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서쪽으로는 미얀마와 태국이 맞닿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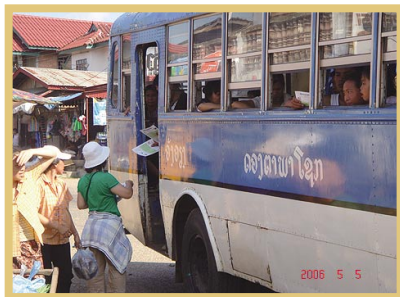
출발 전에 라오스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그곳 연락인과 동수들이 공개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라오스의 주요 도시에 관한 정보를 찾아 일정을 짰다.

우리는 첫날 오후 6시에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Vientiane)에 도착했다. 우리가 투숙한 호텔은 화교인 우 사장이 경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 신이 보내신 호법이었다. 우 사장은 우리의 여행 목적을 이해한 후 열성적으로 도와주고 배려해 주었다. 회의를 거친 후 우리는 라

오스 최대 도시인 비엔티안과 더불어 방비엡(Vang Vieng),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등을 전단 배포 지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역으로 정했다. 우 시장은 이곳 라오스에서는 종교에 대해 민감하니 특별히 신변의 안전을 위해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5월 5일, 우리는 두 조로 나뉘어 각각 비엔티안과 방비엥에서 전단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날 지역 연락인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는 비엔티안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비엔티안 매일 신문(Vientiane Daily News)』사에 연락을 취해 눈에 잘 띄는 곳에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4일 연속 광고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우리에게 지역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방비엥에 도착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 중 한 금발 미녀는 전단을 받고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보고도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채식주의자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어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해요! 너무 멋져요!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부디 내내 조심하세요! 신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거예요.” 피약벌 아래 그녀의 말은 감로수처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식혀 주었다. 전단을 받은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고마워했고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떼 지어 몰려와 전단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들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고 큰 힘을 얻었고 그들에게 사랑과 학용품도 나눠 주었다.

그 뒤 이틀 동안에는 계속 두 조로 나뉘어 활동했다. 한 조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루앙프라방으로 갔고 다른 조는 비엔티안 주변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했다. 11명으로 구성된 비엔티안 팀은 남쪽으로 내려가 길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에 전단을 나눠 주었다. 도중에 우리 기사와 가이드의 표정이 긴장되고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챘지만 어떻게 해야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는지 생각이 안 났다. 우리가 한 마을에 잠깐 들렀을 때 지방 공무원들이 탄 차가 우리에게 다가와 검문했다. 가이드가 우리의 목적을 통역해 설명하자 그들은 태도를 즉시 바꿔 우리의 자비로운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으며 심지어 떠날 때는 감사의 표시로 합장까지 취했다. 그러자 기사와 가이드도 마침내 웃는 얼굴이 되어 나중에는 우리를 도와 전단을 함께 배포했으며 친척과 친구, 교우들에게 줄 전단을 좀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다른 조는 루앙프라방에서 이틀 동안 전단을 배포했다. 차를 대여할 때 신이 보내신 또 다른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이 젊고 친절한 기사는 운전은 물론이고 가이드와 통역 역할까지 해냈고 나중에는 배포 활동도 도와주었다! 그는 루앙프라방에 있는 거의 모든 큰 거리와 작은 골목들과 근처의 마을들로 동수들을 안내해 우리가 임무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게 해주었다.

5월 6일에는 수년 동안 라오스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전단을 읽고 난 후 그대로 동수를 쫓아와 소매를 붙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진작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말을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때맞춰 잘 온 거예요. 여러분은 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어디에서 왔지요?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이 세상은 너무 잔인해요! 사람들은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먹기 위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죠! 우리는 이 지구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상은 정말 훌륭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단체를 꼭 방문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곳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고국의 친구들에게도 알려 주겠습니다. 여러분의 채식 홍보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5월 7일에 루앙프라방을 떠나려고 할 때 기사는 우리의 탑승 수속 절차를 도와준 후 눈시울을 붉힌 채 우리 팀의 책임자 곁에 와서 앉았다. 그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여러분이 떠나는 이 시점에서 루앙프라방과 부근 지역들의 모든 주민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자비로운 행동에 감사를 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틀 동안 여러분이 도시와 시골의 거리와 골목 곳곳을 살살이 누비고 오직 한 집을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역덕을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선 정말 감동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첫날 저는 이 일로 인해 제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일부러 여러분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과 자비심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말 훌륭합니다. 어른 아이도 가리지 않고 가난함과 더러움, 무식함도 개의치 않은 채 우리 동포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세심하게도 사탕과 학용품을 주었고 식사를 할 때는 근처에 있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 줬지요. 또 출가자를 보면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전 이렇게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여러분의 자비로움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피약별 아래에서 배고픈 것도 신경쓰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또 많은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그의 말을 우리에게 통역해 주었는데, 동수들은 모두 그의 진실한 말을 듣고 감동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5월 7일 저녁, 우리는 호텔에서 그 지역의 동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비록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모두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대화 도중 우리는 이 지역 동수들이 한 번도 스승님을 뵈는 적이 없으며 대부분 스승님의 사진이나 천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우리가 소지하고 있던 모든 스승님의 사진과 천의를 그들에게 주었다.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5만 5천 장의 전단을 배포했지만 2만 부가 남았다고 알려 주자 지역 동수들은 즉시 남은 전단 배포 작업을 끝내겠다고 자원했다. 그때 우리는 신께서 이번 여행을 안배하신 것이 이곳 동수들의 용기와 신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다짐으로써 그들이 영적인 길을 부지런히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라오스 여행은 신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부정적인 사고와 두려움, 의심을 긍정적인 생각과 용기, 믿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도착한 첫날에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우리를 의심스러워 했지만 떠나는 날에는 우리를 매우 긍정적인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가장 놀라웠던 것은, 두려움 없는 정신을 보여 준 이 지역 동수들의 극적인 변화였다! ★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신의 자비의 징표

포모사 타오위안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5일, 19명의 포모사 동수 일행이 신의 위대한 사랑에 큰 격려를 받고 자신감을 얻어 브루나이(Brunei)와 말레이시아 사바(Sabah)로 출발해 자비와 사랑,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동수들은 말레이어와 중국어, 말레이어와 영어로 양면 인쇄된 두 종류의 '대안적인 삶' 전단을 준비해 갔다.



브루나이 - 동남 아시아의 작은 석유 왕국

인구가 35만인 브루나이(Brunei)는 입헌 군주국이며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해 '동남 아시아의 작은 석유 왕국'으로 일컬어진다. 이곳의 국민들은 생활이 풍족하고 단순하고 친절하다.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불교와 기독교도 있다. 5월 5일 저녁에 포모사 동수들이 브루나이에 도착하자 말레이시아 사업가인 린 사형이 마중을 나와 호텔까지 태워 주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린 사형의 안내로 『싱저우 일보(Sin Chew Daily)』의 직원을 만나서 그 신문에 '대안적인 삶'의 중국어 광고를 내기로 했다. 또한 다음날부터 BSB 주변의 상가 지역에 전단을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6만 명이 사는 무아라(Muara) 지역은 브루나이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및 상업 중심지이다. 그러나 동수들이 이곳 상업 밀집 지역에 5월 6일에 도착해서 전단을 배포하려고 보니 거리는 매우 썰렁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청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동수들은 그곳에 가서 운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신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었다. 이에 영감이 떠오른 동수들은 차 앞유리 와이퍼 밑에 전단을 끼워 놓았다. 버스를 타고 무아라(Muara) 지역을 이동하는 동안에도 사람이 좀 모여 있다 싶으면 바로 차에서 내려 전단을 나눠 주었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한편 동수들은 영자 신문사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대안적인 삶’ 광고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이슬람교 국가임을 감안해 돼지 대신 양 그림을 넣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심사숙고 끝에 동수들은 스승님이 세심하게 디자인하신 도안을 바꾸지 않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나중에 우리는 이 지역 최대 중국어 신문인 『연합일보(United Daily News)』사의 기자인 지 여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전단 광고에 대해 의논했다. 지 기자는 전단을 배포하는 것 외에 물품을 판매하는지 물었다. 이에 한 사형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동수들이 자비를 들어 브루나이로 왔다는 사실에 감동받은 지 기자는 우리의 전단 배포 활동을 도와주기로 더욱 마음을 굳혔다. 그녀의 도움으로 3만 장의 전단이 신문에 끼워져 배달되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이드는 전단을 돌리도록 브루나이에서 가장 큰 별 여섯 개짜리 호텔인 ‘엠포이어 호텔(Empire Hotel)’로 인도해 주었지만 그곳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에 동수들은 기독교를 믿는 우리 가이드와 무슬림 이슬람교 기사를 초대해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에게 왜 채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설명했다. 가이드는 설명을 듣고선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우리가 외국에서 이 흥미로운 사명을 수행할 때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수들이 제안한 ‘하루에 한 끼 채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일요일인 그 다음날 가이드는 자신이 다니는 성 앤드류(St. Andrew Church) 교회로 동수들을 데리고 갔다. 마침 그곳에서는 국제 식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신이 난 동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단을 나누어 주는 한편 교회 안에 있는 신도들을 위해 전단을 몇 백 장 남겨 놓은 후 브루나이의 유명한 수상촌(水上村)으로 떠났다.

해안의 반대편에 위치한 캄퐁 아예르(Kampong Ayer)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촌이다. 이곳 주민 3만 명은 세상과 동떨어진 은둔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학교와 병원, 슈퍼도 있다. 복잡한 지형 때문에 이 지역의 가이드가 없으면 길을 잃기 십상인데, 자녀들에 대한 신의 사랑 덕분에 기적과 같이 우리 가이드가 많은 사람들을 반대편 기슭으로 실어 줄 특별한 보트를 발견했고 이곳 길을 안내해 줄 현지 가이드도 섭외해 주었다. 그는 또한 주민들에게 우리 방문의 단순한 목적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우리가 집집마다 전단을 배포하는 동안 전단을 받은 주민들은 유쾌한 웃음으로 응대했고 아이들은 수줍어했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점심 식사 후에 동수들은 버스를 타고 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향했다. 신의 인도로 우리가 도착한 곳은 브루나이의 경제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 지역인 벨라이트(Belait)였다. 이곳 주민들은 외부인과 기꺼이 대화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전단을 받는 태도도 다른 곳보다 적극적이었다.



동수들은 쿠알라 벨라이트(Kuala Belait)의 교외도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400가구가 넘는 이반(Iban) 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브루나이 국왕이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기 위해 특별히 계획한 구역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청하고서 10년을 기다려야 권리를 얻는다. 우리는 가이드에게서 이곳의 의료 공공요금에 브루나이 달러로 1달러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국민들을 아끼는 이곳 술탄의 보살핌에 깜짝 놀랐다.



『연합일보』(오른쪽), 『싱저우 일보』(왼쪽).

5월 8일 아침, 우리가 공항에서 사바(Sabah)행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브루나이에서 가장 큰 신문사 두 곳의 기자들이 그날 발행된 신문을 가져다주었다.

『싱저우 일보』에서 1면에 ‘대안적인 삶’ 광고를 게재하는 외에 채식주의와 건강에 관한 기사를 지면 반 정도에 걸쳐 실은 것을 보고 동수들은 펄 듯이 기뻐했다. 『연합일보』 또한 눈에 잘 띄는 곳에 전단 내용을 실어 주었다.

말레이시아 – 사바 여행

이름난 관광지인 사바는 말레이시아 군도 중 두 번째로 큰 페라크(Perak) 주 북쪽에 위치해 있다. 5월 8일, 포모사 동수들이 페라크의 수도인 코타 키나발루(Kota Kinabalu)에 도착해 보니 정 사저가 이미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동수들은 이날 오후부터 네 조로 나뉘어 호텔 주변을 돌며 전단을 배포했다. 정 사저와 다른 두 명의 지역 동수들이 『화교일보(Overseas Chinese Daily News)』에서 전단 광고를 논의하는 동안 다른 동수들은 신문사 주변의 쇼핑 센터와 상가로 향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 동수들은 그 건물 슈퍼마켓 안과 거리에서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한 조가 만난 열성적인 한 주민은 우리 배포 활동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우리에게 “훌륭해요!”를 거듭해서 외치며 지지를 나타냈다.

5월 9일 포모사로 돌아가기 전 동수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남은 몇 시간까지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활용해 가까운 지역에 가서 전단을 배포했다. 주문한 점심 식사를 받으려 한 채식 뷔페 식당에 간 한 조는 그곳 벽에 대형 ‘대안적인 삶’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정 사저가 진작에 포스터를 갖다 준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곳 사장은 아주 기뻐하며 즉시 포스터들을 붙였다고 한다. 식당에 붙여진 대형 포스터와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본 동수들은 매우 기뻐했다. 식당 사장은 동수들에게 보다 많은 손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단을 많이 두고 가라고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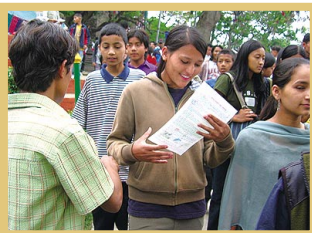
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할 때는 동수들의 집에서 금박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짐을 열어 보니 전단밖에 없었다. 동수들은 이를 통해 신의 사랑이 이 전단에 두루 퍼져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신의 축복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수들에게 DVD ‘진정한 영웅’과 스승님의 견본책

자, 『무상 주방』 요리책과 다른 출판물들을 함께 나누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다. ★

네팔

석가탄신일에 신의 메시지를 전하다

아자이 스텔스타 사형/ 네팔 카트만두 (원문 '네팔어')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3일은 석가모니 탄신 2550주년 되는 날이다. 이날 카트만두 센터의 동수들은 스와얌부나트 사원(Swayambhu Nath Temple)*에 함께 모여 네팔어로 된 ‘대안적인 삶’ 전단을 배포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수천 명이 이곳에 모여 석가탄신일을 경축한다. 전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고아한 이념과 아름다운 디자인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많은 정보에 대해 문의했다. 이 전단은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끌 뿐 아니라 어떤 연령층에도 적합해서 우리는 물밀듯이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전단을 배포하고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단 두 시간 만에 전단이 모두 동이 났다! 모두들 신의 메시지를 받고 매우 기뻐했다. 이날이 우리의 메시지와 더불어 그들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리라 믿는다. ★



*스와얌부나트 사원(일명 원숭이 사원)은 세계 문화 유적지 중 하나이다. 석가모니불은 2550년 전 네팔 룸비니(Lumbini)에서 태어났다. 이에 따라 룸비니는 전세계에 ‘아시아의 빛’으로 알려져 있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대한민국

채식에 대한 남녀노소 대중의 의식이 고양되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서울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4일, 서울 센터는 서울에서 가장 분주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쇼핑의 거리인 명동에서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스승님의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성대한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인간을 위해 희생된 동물 친구들을 위한 짧은 묵념을 한 뒤 젊은 사형사 저들이 스승님의 생신 축하를 위해 노래를 몇 곡 불렀다.

스승님의 빛나는 나눔과 보살핌의 모범에 따라 동수들은 푸짐한 채식 음식을 준비해 약 1천 5백 명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각자에게 제공된 음식은 간단한 시식 정도가 아니라 맛있는 콩고기로 점심 식사를 할 정도로 충분한 양이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규모의 식사 제공이었으며 그에 대한 반응 또한 놀라웠다. 단 2시간 만에 약 9백 명이 '생명 사랑 1천만 서명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시민들은 콩고기가 실제 고기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면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생명의 중요함에 대해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고 평했다. 박식한 한 남성은 "고기 생산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우리가 채식을 하면 이 에너지가 절약되므로 채식이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전시되어 있는 스승님의 그림과 뉴스잡지, 견본책자를 보고 스승님의 가르침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음식을 모두 나눠 준 뒤 동수들은 채식의 유익함에 대해 설명하는 피켓을 들고 도심 거리를 행진했다. 스승님의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도 대중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5월 16일 신당 4동 어린이집의 6세 아동 30명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이 서울 센터의 SM 채식 뷔페에 현장 견학을 왔다. 아이들은 콩에 대해 배우던 중 콩고기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자 SM 채식 뷔페를 방문했다.

어린이집에서 출발하기 바로 얼마 전에 방문 소식을 알려 줬지만 다양한 ‘대안적인 삶’ 활동을 통해 채식 홍보를 하는 데 단련된 동수들은 순식간에 동물 복장, 귀여운 플래카드, 풍선 등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갖추고 이 어린이 손님들을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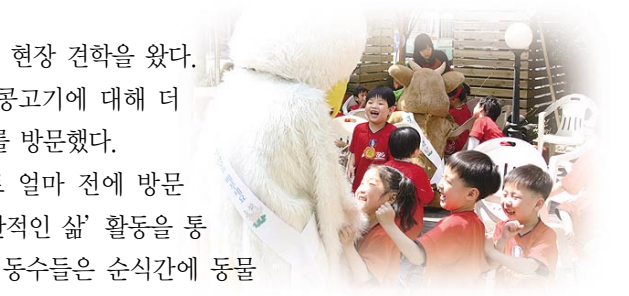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동물 복장을 한 친구들과 채식 콩 고기를 먹으면서 동물에 대한 사랑과 콩 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채식 뷔페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콩고기 음식을 제공했다. 아이들은 ‘사랑의 대체 음식’을 좋아했으며 몇 번이나 갓다 먹었다.

심은주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은 인스턴트 음식만 좋아해요. 오늘 이곳을 찾은 것은 아이들에게 콩으로 고기와 같은 맛을 가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5월 18일 서울 센터는 연세대학교 축제에서 부스를 차리고 대학생들에게 채식의 이로움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한국의 주요 대학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는 위치가 좋아서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15명 정도 되는 사형사자들이 이 축제에 참가해 무료 채식 시식회와 ‘대안적인 삶’ 전단 배포 활동을 펼쳤다. 스승님의 놀라운 안배 덕분에 우리는 대학 정문 바로 옆 가장 좋은 자리에 부스를 차릴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스승님의 메시지를 명확히 볼 수 있었고 바로 받아들였다.

손님들이 주로 선입견이 거의 없는 개방적인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을 잘 받아들였으며 동수들 또한 이러한 호응에 마음이 매우 흡족했다. 약 1천 5백 명이 채식 시식했고 그 중 950명이 ‘생명 사랑 1천만 서명 캠페인’에 서명했다.

우리는 장차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될 이 학생들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행복했다. 이는 세계가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들어섰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광주

4월 22일은 37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광주에서는 매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0여 개 시민 단체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광주 센터는 ‘채식과 환경’을 주제로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행사 당일 아침 일찍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다. 그래도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비도 서서히 갠지던 점심 무렵 우리는 시내 중심으로 이동해 행사를 시작했다. 전단과 채식 햄버거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채식을 지지하는 서명도 해주었다. 스승님의 축복과 대전 센터 동수들의 도움으로 이날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비록 지구의 날 행사가 비 때문에 취소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축 행사를 다시 한 번 개최 하길 희망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 4월 30일에 30여 단체가 광주의 주요 도로인 금남로에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시했다. 동수들과 채식 관련 장비들로 가득 찬 우리 부스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다.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 티셔츠를 입고 무대에서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꼭짓점 댄스’를 공연했다.



서명을 하고 우리와 함께 피켓을 들고 있는 광주 시장.

이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 광주 시장이 우리 부스를 방문해 ‘생명 사랑 1천만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던 것이다. 그는 또한 “채 식인으로 키워 주세요, 엄마!”라고 씌어진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사진도 찍으면서 우리에게 이 훌륭한 일이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 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환경과 채식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의식이 깨어나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되길 희망했다!

5월 14일 광주 센터는 삼지 공원이라는 작은 섬터에서 지난 4 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했던 한 단체와 함께 ‘대안적인 삶’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 공연과 채식 시식회를 즐기면서 채식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자비롭고 고귀한 삶을 실천 하는 채식 서명 활동에 동참할 기회를 가졌으며 우리의 메시지를 아주 잘 받아들였다.



부산

서울 센터와 영동 센터 동수들이 합류한 가운데 4월 30일 부산역에서 홍보 활동이 전개되었다.

부산역은 서울발 고속열차의 종착역으로 언제나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며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 펼쳐지곤 한다. 동수들은 두 조로 나뉘어 한 조는 친근한 동물 복장을 하거나 과일과 채소 그림이 그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려진 모자 등을 착용한 모습으로 광장 곳곳에서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많은 이들은 갈 길이 바쁜 와중에도 밝고 경쾌한 의상을 입고 환한 웃음으로 전단을 건네는 우리로부터 전단을 흔쾌히 받아 갔다. 또한 조는 채식 홍보 코너를 설치했다. 음식들을 시식해 본 행인들은 이 맛있는 음식이 고기가 아닌 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놀라워했으며 우리 단체가 영리를 추구하

지 않은 채 세상의 환경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채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지지하는 '생명 사랑 1천만 서명 캠페인'에 서명해 주었다.

우리 활동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또 다른 단체가 나타났다. 이들은 우리 옆에서 발랄한 음악과 함께 활발한 댄스를 선보였다. 그것은 바로 올해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 때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는 행사였다. 춤을 추던 젊은이들이 사람들에게 같이 춤추도록 동참을 부탁하자 야채와 과일 장식으로 치장하고 '채식 실천 생명 사랑'의 문구가 씌어진 티셔츠를 입은 동수들과 '조류 독감과 광우병을 예방하자'는 배너를 두른 동물 분장의 동수가 이들과 함께 어울렸다. 그러자 자연스레 전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채식 음식을 맛보고 춤도 추게 되었다. 댄스 팀의 리더는 동참해 준 '채식 사랑 단체'에 감사했다.

이번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채식 도시락을 따로 준비해 와서 그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 '예술과 영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삶

티셔츠, 손가방, 모자



밝고 눈에 확 띄는 AL(Alternative Living) 티셔츠에 AL 모자를 쓰고 거기다가 실용적이고 우아한 AL 가방을 메고 세계 곳곳에 신의 사랑을 전하세요.

티셔츠와 가방은 앞에는 귀여운 동물과 채소 그림,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의 명단이 인쇄되어 있고 뒤에는 '대안적인 삶' 전단 내용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또한 SM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일깨워 주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 **야구 모자:** 근사한 글자가 수놓아져 있으며 햇빛 차단 효과가 있음.

◎ **티셔츠:** 100% 고급 면 소재로 통풍이 잘 되게끔 인쇄됨.

1.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V 네크라인 티셔츠.
2.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먹지 마세요' 크루 네크라인 티셔츠.

◎ **'대안적인 삶' 손가방:** 야외에 나갈 때나 출근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손에 들거나 어깨에 댈 수도 있음.

1. 지퍼, 앞면과 양옆에 주머니가 있으며 작은 안주머니가 달린 방수 처리된 다용도 가방.
2. 투명 비닐 재질, 옆 주머니가 달린 레저용 방수 가방.
3. 보풀이 생기지 않는 부직포로 만든 친환경 쇼팡 가방.

여러 언어로 된 제품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M. Celestial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 unite@Godsdirectcontact.com

사랑의 집에 더불어 사는 개와 고양이 친구



구술: 포모사 타이베이 라오 사저
정리: 타이베이 뉴스그룹

1999년 4월에 떠돌이 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성 단체에 가입한 후 라오 사저는 갓 태어난 강아지들이 어미에게서 충분한 젖이 나오지 않아 종종 죽는 경우를 발견하곤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불쌍한 마음에 강아지 두 마리를 집에 데려와 키웠고 그 강아지들이 신의 선물로 여겨졌기에 ‘할레’와 ‘루야’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어느 비 오는 날, 할레가 배에 큰 상처를 입고 거의 죽어 가던 것을 보고 사저는 그를 그 자리에서 데려왔다. 그후 떠돌이 개들에게 밥을 주던 어느 날, 먹이를 놓고 다른 큰 개들과 싸우다가 물어 뜯겨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비쩍 마른 루야를 보고 다시 생존 싸움에서 구출해 냈다. 이 두 강아지는 곧 생기와 활기에 찬 모습을 되찾아 이해심 많은 그녀의 가족이 되었다.

라오 사저는 할레와 루야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하면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대안적인 삶’ 전단이 나오자 그녀는 이 친구들에게 전단을 열심히 나눠 주면서 채식 사료를 먹이도록 설득했다. 또한 개를 키우고 동물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스승님이 알려주신 정보도 알려 주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라오 사저는 할레와 루야가 신의 사랑을 전하고 동물 친구들

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도구가 된 것에 기뻐했다.

시후 센터에서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자연과 건강을 중시한 개집들이 전시되자 라오 사저는 뭇 듯이 기뻐하며 즉시 방문객들에게 이 개집의 특징을 설명하는 자원 봉사대에 가입했다. 할레와 루야를 위해 이 ‘사랑의 호화 주택’을 구입한 사저는 이 개집이 정말 조립과 해체, 청소하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런 세심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이 넉넉하고 통풍도 매우 잘 된다. 할레와 루야는 투명한 현관 복도에 누워 바깥 세상을 관찰할 수도 있고 열린 지붕 밖으로 머리를 빼죽 내밀고선 다가오는 방문자들에게 한두 번 짖으며 인사를 건네고 그 참에 꼬리도 조금 흔들며 환영을 표한 뒤 다시 달콤한 낮잠에 빠져들기도 한다. 또 겨울에는 종종 일광욕을 해서 몸을 데울 수도 있으니 정말 편안하고 평온한 삶이 아닐 수 없다! 비가 오는 날에는 ‘사랑의 호화 주택’ 안의 매트리스에서 마냥 편안하게 누워 자는데 둘의 코골이 이중주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

최근 랴오 사저는 개들과 공원을 산책하던 중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고양이 세 마리가 큰 쓰레기통 옆에서 힘없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공원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이 새끼 고양이들이 복잡한 차로 한가운데에 있는 안전지대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해서 구해 왔지만 자신도 키울 형편이 안 돼서 공원 쓰레기통 옆에 먹을 것을 찾길 바라며 두었다고 한다. 새끼 고양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랴오 사저는 그들을 입양하기로 마음먹고선 각자 털 색깔에 따라 노란 녀석은 ‘골든’, 까만 애는 ‘씨니’, 얼룩무늬는 ‘레인보우’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낮선 환경에 처하게 되자 새끼 고양이들은 자기들을 위해 준비된 조그만 침대 안에서 소심하게 눈치를 보았다. 그러자 다정한 친구 루야가 제일 먼저 모성애를 발휘해 보모 역할을 자청했다. 루야는 새끼 고양이들을 ‘사랑의 호화 주택’에 데려가 같이 침실을 나눠 썼

다. 그는 그곳에서 고양이들과 같이 놀아 주고 놀다 지치면 같이 잠들곤 했다. 골든은 언제나 개들의 매트리스를 차지해 버렸지만 루야는 개의치 않았고 할레도 새끼 고양이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이해심 많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개구쟁이 골든은 때로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루야의 발을 핏기기도 했지만 루야는 아픔도 무시하고 골든의 장난감이 되어 주었다.

세 마리 고양이들이 마치 아이들이 스프링 침대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 놀 듯이 침실 카펫 위에서 뛰어놀면 루야는 아버지처럼 그들이 떨어져 다칠까 봐 노심초사하며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곤 한다. 이런 광경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 옆에서 지켜 주던 모습을 연상시킨다. 랴오 사저는 이 반려 동물들을 보살피는 과정을 통해 스승님이 강연 중에 동물의 사랑과 우정에 대해 설명하셨던 부분을 깊이 체득할 수 있었다. 동물들의 세계를 비롯해 세상 어디에나 사랑과 자비로움은 정말 존재한다! ★





개들에게도 행복한 채식을 시키자

이브 아담 사저/ 호주 시드니 (원문 영어)

현재 전세계 채식주의의 숫자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개에게도 똑같이 도덕적이고 건강에 이로운 채식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판매되는 채식 사료를 비롯해 고기 대체용 애완동물 사료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자기 개에게 직접 신선한 채식 식사를 준비해 줄 수는 있다. 다음과 같은 요리법은 아주 쉽고 간편해서 만드는 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개를 위한 요리법

(다음은 소형견의 두 끼 식사량을 기준한 것이므로 대형견의 경우에는 분량을 두 배로 잡아야 한다.)

재료:

숙성 조리용 귀리 1컵
두유 가루
(익혀서 으갠 콩으로 대체할 수 있음) 1/4컵
맥아 1/4컵
양조 이스트 1큰술
해바라기씨 가루 1큰술
아마씨 가루 1티스푼

조리법:

물을 끓인다. 귀리를 1분 정도 그 속에 담가 둔 후 약간 점성이 생길 때까지 휘젓는다. 나머지 재료를 다 넣고 잘 섞어 준다. 두 끼 분으로 나눠 아직 따뜻할 때 한 끼 분을 주고 나머지 반은 저녁용으로 냉동실에 넣어 둔다. 저녁에 줄 때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섞기만 하면 개에게 빠르고 간편하고 영양 많은 저녁 식사를 먹일 수 있다!

주: 이 요리법에 나온 귀리, 맥아, 두유 가루(으갠 콩)의 조합은 곡물과 콩이 적절히 들어 있어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참고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vegetariandogs.com/>

http://www.helpinganimals.com/animalsHome_gi_vegAnimals.asp

<http://www.vegpets.com>

<http://www.vnv.org.au/Articles/Dogs&Cats.htm>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후속 명단)

작가, 시인, 예술가와 화가

린 베리(Rynn Berry: 미국 작가, '북미 채식 협회' 역사 고문, '지구 구조대[Save Earth]' 위원), 켄지 미야자와(Kenji Miyazawa: 일본 시인, 아동문학 작가), 크리스티안 오피츠(Christian Opitz: 독일 작가), 크리스티안 모르겐슈테른(Christian Morgenstern: 독일 시인, 작가), 크리스티안 바그너(Christian Wagner: 독일 시인, 작가).

모델과 패션 디자이너

페르난다 타바레스(Fernanda Tavares: 브라질 슈퍼모델, 동물 권리 옹호자, TV VJ), 나자 아우어만(Nadja Auermann: 독일 슈퍼모델, 여배우).

영화, TV 배우, 감독, 제작자

사무엘 잭슨(Samuel L. Jackson: 미국 배우, 아카데미상 후보), 프레데릭 박(Frédéric Back: 캐나다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 경력이 있는 제작자), 천수리(陳淑麗: 중국 여배우), 카시아 키스(Cassia Kiss: 브라질 여배우), 타니아 마리아 레고 알베스(Tania Maria Rego Alves: 브라질 여배우, 무용가, 가수, 기업가), 슈테파니 킨더만(Stephanie Kindermann: 독일 여배우), 지씨 페를링어(Sissi Perlinger: 독일 여배우, 연예인), 바바라 뢰팅(Barbara Ruetting: 독일 여배우, 작가, 바이에른 녹색당 정치가), 디르크 바하(Dirk Bach: 독일 배우, TV 프로그램 사회자, 코미디언).

인도주의자와 환경론자

테레사 쉬(Teresa Hsu: 싱가포르 자선사업가, '싱가포르의 테레사'로 알려짐).

의료인과 과학자

리빙난(李柄南: 1890-1986, 중국 한의사, 학자), 알프레드 포겔(Alfred Vogel: 스위스 대체의학 의사, 작가, 제약회사 기업가).

가수와 팝 스타, 무용가, 음악가

크리스 마틴(Chris Martin: 영국 가수, 리듬 기타리스트, 피아니스트), 안드레 3000(Andre 3000: 본명은 안드레 벤자민 [André Benjamin], 미국 래퍼, 힙합 제작자, 배우), 엘바 샤오(Elva Hsiao: 중국 가수), 리타 리 존스(Rita Lee Jones: 브라질 가수, 작곡가, 라디오 방송인, 아동 작가), 로베르토 세노비오 아폰소 데 카르발로(Roberto Zenobio Affonso de Carvalho: 브라질 전자기타 연주자, 리타 리 존스의 남편), 나르시사 스시우(Narcisa Suci: 루마니아 가수), 게오르게 잠피르(Gheorghe Zamfir: 루마니아의 유명한 팬플룻 연주자), 쿨 사바스(Kool Savas: 독일 랩 음악가), 네나(Nena: 독일 팝 스타), 니나 하겐(Nina Hagen: 독일 펑크 음악가), 크자비어 나이드(Xavier Naidoo: 독일 음악가).

철학자와 학자

황니엔주(黃念祖: 중국 교수, 불교 수행자), 장자(莊子: 중국 고대 철학자, 영적 수행자), 헬무트 카플란(Helmut F. Kaplan: 오스트리아 철학자, 작가, 동물 권리 운동가).

정치가와 사회 운동가

다이애나 비(Princess Diana: 영국 왕세자비, 동물 권리 옹호가), 나타푸타 와리다마나(Nataputta Vardhamana: 인도 왕자[BC 599-527], 자이나교 개혁가), 헨리 스피라(Henry Spira: 미국 동물 권리 운동가, 미국에서 '동물 실험 중지' 운동 주창), 양무제(梁武帝: 중국 남조시대 양나라 개국 황제), 힐베르토 파소스 힐 모레이라(Gilberto Passos Gil

Moreira: 브라질 문화부장관, 싱어 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살바도르 시의원), 에데르 호프레(Eder Jofre, 브라질의 위대한 권투 선수, 상파울루 시의원).

종교 및 영적 지도자와 관련 유명 인사

보리달마(Bodhidharma: 전설적인 불교 대사, 중국 선종과 소림 무술 창시자), 혜능(慧能: 중국 선종의 제6조), 현장(玄奘: 중국 당나라 때 불교 법사, 17년에 걸쳐 인도를 여행해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가져온 것으로 유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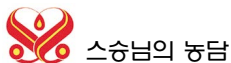
TV, 라디오 유명인사

파트리시아 트라바소스(Patrycia de Rezende Travassos: 브라질 여배우, TV 프로그램 진행자, 작가, 작곡가), 플라피아 리피(Flavia Lippi: 브라질 TV 편집자 겸 진행자, 기업가, 작가), 샤롯데 카를린더(Charlotte Karlinde: 독일 TV 프로그램 사회자), 데지레 노스부쉬(Desiree Nosbusch: 또는 데지레 베커[Desiree Becker], 룩셈부르크 TV 프로그램 사회자, 여배우).

보다 상세한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명단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나라별, 직업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AL.Godsdirectcontact.org.tw/vg-vip>



부전자전

청하이 무상사/ 미국 플로리다 2003. 2. 4.

(원문 영어) DVD No. 754

한 사나이가 슈퍼마켓에서 아기와 다른 물건이 있는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계속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 남자는 통로를 따라 나가면서 계속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해, 조지! 흥분하면 안 되지, 조지! 착하다, 조지! 소리치지 마, 조지!” 한 여자가 그를 감탄의 눈길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린 조지를 조용히 시키는 당신의 인내심은 정말 칭찬할 만하네요!” 그러자 그가 애기했죠. “아니에요! 제가 조지예요!” ★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69/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69/jk1.htm> (포모사)



일본

사랑의 활동으로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하다

일본 군마 뉴스그룹 (원문 일본어)

언젠가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값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군마 센터 동수들은 칭하이데이와 스승님의 생신 때 어려운 이웃과 이재민 등에게 그때 상황에 맞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스승님 생신에는 대중목욕탕을 빌려서 노숙자들에게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따뜻한 목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줄 선물로 옷과 신발, 의약품, 가방을 마련했고 전문 미용사를 통한 이발 서비스도 제공했다. 또 멀리 사는 사람들은 무료로 태워다 주기도 했다. 이 밖에 우리는 '대안적인 삶' 전단을 끼워 넣은 채식 도시락과 된장국을 대접했으며 휴식 공간에 '대안적인 삶' 포스터도 붙였다.

거리의 친구들은 오랜만에 목욕을 하고 나오면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머리를 자르려고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채식 음식을 먹는가 하면 전단을 읽거나 동수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아이처럼 맛있게 음식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동수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으며 스승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렸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 말했다. “목욕하고 머리까지 잘랐으니 이제 면접 봐서 직장 구하는 일만 남았네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무슨 기념일인가요? 왜 우리에게 이토록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거지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한 여성은 “이렇게 행복한 게 정말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어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다니, 목이 메어 음식을 넘길 수가 없어요! 신이 정말 계시나 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채식 도시락의 맛에 감탄했다. 그 가운데 몇몇은 친구들에게 갖다 주거나 자기가 먹기 위해 남은 음식을 청하기도 했다. 우리가 이 대중목욕탕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준 이 목욕탕 회사의 가맹점 직원들도 업무가 끝나고 행사장에 들러 채식 요리를 즐겼는데 그들 또한 음식 맛에 감탄했다. 심지어 한 행인은 와서 농담조로 물었다. “뭘 팔고 있는 거예요? 얼마예요? 무슨 음식을 팔고 있나요?” 이에 한 동수가 이렇게 답했다. “우린 사랑을 팔고 있고 무료예요. 우리는 사랑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에 사람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사람들은 각자 묵묵히 이 기분 좋은 분위기에 젖기도 하고 자신의 생활을 이야기하기도 했으며 근심 걱정을 잊은 채 계속 농담을 하기도 했다. 공중목욕탕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마련한 우리 행사장은 그 즉시 천국이 되어 사람



들은 마음을 열고 축복과 행복을 한껏 느끼게 되었다.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으로 씻긴 사람들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모두 다시 태어난 것처럼 얼굴은 환해졌고 눈동자는 반짝였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날 저녁에 직장을 구했으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았다! 오랫동안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 불우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스승님의 완벽한 안배 속에서 군마 동수들의 시기 적절한 행동은 기적을 불러왔다.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봐 왔지만 동수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볼 때마다 놀라곤 한다. 스승님은 그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으신 채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보내신다. ★

태국

홍수 피해자들에게 긴급 구호품을 제공하며 신의 보살핌을 전하다

태국 방콕 뉴스그룹 (원문 태국어)

2006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남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3일 연속 폭우가 쏟아졌다. 이 때문에 태국 북부 지역에는 심각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다. 우타라디트(Uttaradit), 수코타이(Sukhothai), 프레(Phrae), 피차눌록(Phitsanulok) 등 네 주(州)가 피해를 입었는데 산촌 지역에서 타고 내려온 홍수 잔해들이 평야 쪽으로 쏟아졌으며 산촌 부근의 도로와 다리, 주택이 유실되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지역 동수들은 즉시 구호 팀을 결성해 4일간 계속해서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다. 5월 25일 첫 구호 작업이 시작됐다. 동수들은 프레의 초우헤어 군(Chow-Hair District)으로 가는 도로와 다리가 끊기고 온통 진흙더미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면사무소에서 이재민들에게 식수가 시급히 필요하

다고 알려 줘서 동수들은 283가구에 60다스의 생수를 즉시 제공한 다음 쌀, 마시는 요거트, 간장, 식용유, 두유, 위생용품, 세제 같은 구호품을 준비해 이재민들에게 나눠 줬다.

이튿날인 5월 26일에는 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타라디트 주 랩페 군(Lab-Lae District) 매푸 면(Mae-Phoo Sub-District)의 무(Moo) 7마을에 가서 그곳의 2, 3백 명의 이재민과 승려들에게 채식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이어서 동수들은



무 11마을에 가서 구호품을 나눠 줬으며 그런 뒤 화동 군(Hua-Dong District) 무 2마을로 향했다. 구호 팀이 도착하자 주민들은 서둘러 달려와 환영하고 음식과 긴급 구호 물자를 받아 갔다.



바구니에 담긴 구호품이 밧줄에 매달려
무너진 다리를 넘어 운반된다.

구호 활동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27일에는 프레 초우헤어 군 나통촌(Natong Village) 무 9마을로 나섰다.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끊어진 상태라서 구호 팀은 밧줄을 몸에 묶고 다리를 건너 뒤 구호 물자를 바구니에 담아 건너편에서 바구니를 잡아당겼다. 예빈부 재난 구호 센터 직원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전해지도록 동수들을 도와 구호 물품을 다리 건너편으로 옮겨 주었다. 신의 축복으로 모든 물품이 무사히 옮겨질 수 있었다.

동수들이 나통촌에 도착해 보니 우리가 그곳에 온 최초의 구호 팀이었다. 동수들은 쌀과 통조림 음식 등 시급히 요구되는 구호품을 신속하게 배포하면서 우리가 태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 왔으며 이재민들의 상황을 매우 염려하신 스승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내 사랑과 구호품을 전달함으로써 영적인 위로와 물질적 지원을 함께 주시고자 했다고 알려 주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구호 팀 한 조는 남클라이촌(NamKlai Village)과 남쭈촌(NamJom Village)에 가서 촌장에게 구호품을 전하면서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인 5월 28일에는 몇몇 동수들이 나통촌에 돌아가 무너진 다리 등 시설물을 보수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89명의 구조대원들에게 음료수를 주고 채식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대원들은 채식 음식의 맛이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



이재민들에게 채식 음식을 제공한다.

서울

학대받는 동물을 구해 낸 숭고한 노력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대한민국

강화하라.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정부는
개지육 사태를
해결하라.

동물들은 개인의
재신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
입니다.!!

시청 앞에서 동물 보호법 개정을 위한
시위에 동참한 동수들.

최근 인천 장수동에서 '개 지옥'이라는 충격적인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해 한국 사회에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인천의 한 행정기관이 토지 구획 정리의 일환으로 개 사육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 주인이

높은 보상을 요구하며 거부하자 사육장을 강제 철거했다. 개 주인은 이에 항의해 원래 있던 터 옆에 소규모의 임시 사육장을 만들고 그 안에 개들을 가둔 채 시위를 시작했다. 죄 없는 개들은 볼모로 잡힌 채 좁은 철창에 갇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수백 마리였던 개들이 일년이 지난 지금은 겨우 백여 마리만 남게 되었고 개 사육장의 모습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동물 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끔찍한 학대를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 이런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지할 제대로 된 동물 보호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 기관이나 동물 보호 단체는 사육장 주인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기댈 수 없었다. 이 끔찍한 상황은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12일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알려짐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CARE 회장인 사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뷰를 한다.

3월 14일 동수들은 채식 사료를 가지고 동물 보호 단체인 CARE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저와 함께 이 사육장을 찾아갔다. 현장 곳곳에는 지독한 냄새와 함께 개 뼈와 가축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동수들은 동물 보호 단체 사람들과 함께 스승님께 기도하며 장시간에 걸쳐 주인을 설득했다.

처음에는 냉정하고 완고하게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던 주인도 동수들의 진심 어린 호소에 감동해 점차 마음을 돌려 마침내 치료를 목적으로 일부 아픈 개들을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동수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신 스승님께 마음속으로 감사드렸고 개 주인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힘을 합쳐 개들을 구출하기로 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3월 16일을 '장수동 개 구출의 날'로 잡고 이 일을 도와줄 자원 봉사자를 모집했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구출된 개들을 위해 기존의 보호소를 확장하는 공사가 시급했기 때문에 개 구출 전날인 3월 15일에 목수를 포함한 세 명의 동수가 하루 종일 아픈 개들을 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3월 16일 아침, 현장에 도착한 동물 보호 단체의 자원 봉사자, 수의사들과 함께 동수들은 개들을 구조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좁은 개장에서 오물을 뒤집어 써 가며 30여 마리를 트럭에 싣자 주인은 더 이상은 데려갈 수 없다며 완강하게 나왔다. 다시 설득 작업에 들어가 약 30분 후 10마리만 더 데려가라는 허락을 받아 냈다. 자원 봉사자들이 한 마리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23마리를 더 트럭에 실을 수 있었다. 결국 50여 마리의 개들이 구조돼 동물 보호 단체로 옮겨졌고 이 장면은 9시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보호소에 도착해 넓은 우리에 넣어 주자 개들은 낯설어하면서 서도 한결 기운을 차렸다.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죽어 가던 개들은 깨끗하고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자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개 지옥'에서 개들을 구출하고 있는 동수들.

3월 26일에는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물 보호법 강화 촉구를 위한 시위가 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 시위에는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동수들도 피켓과 촛불을 들고 동참했다. 이날 장수동에 남아 있던 나머지 개들까지 모두 구출해 시위 현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큰 박수로 환영했다.

한국에서 동물의 처우에 대해 분노하고 동물 관련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이토록 높았던 적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다. 너무도 끔찍하고 슬픈 일이었지만, 이 충격이 몰고 온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다. 여러 매체에 연일 대서특필되고 열린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 낸 이 사건은 동물의 권익과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도주의적 양심을 일깨웠다. 또한 행정 기관에서도 동물 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동물 보호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크게 알려지며 동물 보호와 생명 사랑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

고 동물 보호법 개선을 요구하는 글이 날마다 인터넷 게시판에 채웠다. 이 밖에 이 사건 이후 동물 보호 단체들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대안적인 삶' 전단이 더 큰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으며 채식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스승님의 위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개 주인이 개를 풀어 주는 동수의 설득에 마음을 열 수 없었을 것이며 개들이 구조되어 새 보금자리로 옮겨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느낀 동수들은 스승님께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고통 받던 개들이 구출되긴 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동물 보호법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과 모든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채식 캠페인을 통해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의 어린 형제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올려진 이번 사건에 대한 뉴스.

대구

대구 노숙자들과 자원 봉사자에게 신의 사랑을 전하다

대구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대구 센터는 매월 첫째 주에 동대구역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 동수들이 처음으로 음식을 제공할 당시 '인도주의 실천 의사회'의 무료 검진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날 식사가 완전히 동이 나는 바람에 의사들과 다른 자원 봉사자들은 채식 음식을 맛볼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이 기사를 보신 자비로운 스승님은 대구 동수들에게 의사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도록 하셨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세심한 배려에 놀라움과 기쁨을 금치 못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24일 노숙자들에 대한 배급과 진료가 끝난 뒤 의사들과 의대생, 구청직원 등 모든 봉사자들이 아주 특별한 채식 도시락을 선물받았다. 도시락 안에는 센터에서 가장 솜씨 좋은 요리사가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든 맛깔스런 여러 가지 채식 음식이 담겼고 쌀쌀한 날씨를 감안해 뜨거운 채식 추어탕도 함께 준비되었다. 동수들은 예쁜 포장지로 뉴스잡지와 견본책자, ‘대안적인 삶’ 전단을 넣어 예쁘게 포장해 선물했는데, 봉사자들은 이 예쁜 선물을 받고 기뻐했으며 도시락의 풍성한 내용물이 모두 채식이라는 것과 그 훌륭한 맛에 놀라워했다. 모두들 채식 음식이 일반적으로 먹던 음식보다 담백하고 깔끔하며 맛있다고 좋아했다. 이 밖에 그들은 노숙자들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배려를 베푸신 스승님의 사랑에 큰 감명을 받고 감사했다.

대구 노숙자 보호소인 ‘쪽방’의 강정우 간사는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료 급식을 받는 사람들 중 반 정도가 노숙자이고 나머지 반이 독거 노인, 장애인, 실직자들로서 모두가 난한 사회 소외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늘 돕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감사드립니다.”

동수들은 그 다음달인 4월과 5월에도 대구역의 노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채식 음식을 대접했다. 사람들은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하면서 즐거운 나머지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다. 자원 봉사자를 보고 우리의 사랑과 채식 음식에 대해 몇 번이나 고마워했다. 이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대한 스승님의 세심하기 그지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노숙자들과 사랑을 나누는 대구 동수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케냐

가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계속 진행 중인 우물 파기 공사

국제 전화 인터뷰를 기초로 한 타이베이 뉴스그룹의 보도
(원문 중국어)

동아프리카 케냐에 오랜 가뭄이 지속되어 수백만 인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케냐의 상황을 매우 염려하신 칭하이 무상사는 동수들에게 지시해 케냐 주민들에게 우물을 파 주도록 하셨다.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동수들은 즉시 현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우물 파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충분한 수원(水源)을 찾지는 못했지만 동수들과 작업 팀은 모두 최선을 다해 끈기 있게 일하면서 하루속히 주민들의 급수난이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

국도가 광대하고 가뭄의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수원지를 신속하게 찾아내기 위해선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장비와 기술 지원이 쉬운 수도권 지역에 중점을 맞춰야 했다. 그래서 동수들은 4천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산촌 칸군도(Kangundo)에서 우물 파기 공사를 시작해 이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자 했다. 동수들과 우물 파는 회사의 최우선 기준은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우선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형의 말에 따르면 올해 4월 우물 파는 회사와 계약을 하기 전 며칠 동안 먹구름은 끼었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계약을 한 날부터 2주 동안 내리 폭우가 쏟아졌고 지금까지도 간간히 소나기가 내려 가뭄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케냐에서 우물을 파려면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다행히 동수들은 관련된 국제 기구의 추천이나 보증도 없는 상태에서 스승님의 축복으로 일주일 만에 허가를 받았다. 4월 말 케냐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동수들과 작업 팀은 여러 대의 차량에 장비를 싣고 주요 도로를 달려 고개를 몇 굽이 넘어 마침내 칸군도에 도착했다. 이곳은 4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산촌으로 늘 물이 부족한 곳이다.

전문 기술자가 물이 있을 만한 곳을 한 곳 선택했고 우물 파는 회사도 80미터 아래에 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안타깝게도 물이 없었다. 그래서 작업 팀장은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기로 했는데 120미터 깊이에서 물이 조금 발견되긴 했지만 다음 장마철이 될 때까지 버티기엔 물의 양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180미터 지점까지 좀 더 파 보기로 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지금까지 20년의 경력 동안 이렇게 물을 찾지 못한 일은 극히 드물다고 했다.

우물을 파려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은 열렬한 환영을 보냈다. 작업 팀을 맞이하며 주민들은 올해 이미 장마철이 지나갔지만 예년만큼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케냐는 2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雨季)이고 10월부터 11월까지 짧은 우기가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년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어딜 가나 가뭄과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TV에선 연일 가뭄으로 인한 사망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

소식이 보도되었지만 외딴 지역까지는 정부의 구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일부 지역은 교통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몇 시간이나 걸려 물을 구해 오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칭하이 무상사같이 자비로운 분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도 이렇게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해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는 것에 운이 좋다고 여겼으며 진심으로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또한 신께서 이처럼 자비로운 분을 축복하시길 신실하게 기원했다. 그 마을을 방문 중이던 미국 텍사스에서 온 한 학생 단체는

“이 세상에 칭하이 무상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더욱 많아진다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6월 2일까지 우물 파기 공사는 160미터 깊이까지 진척되었지만 더 큰 물줄기를 찾기 위해 180미터까지 파내려 가기로 했다. 이 밖에 마사이(Masai)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작업팀은 그곳에서도 우물 파기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케냐를 지나간 동물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진 탓에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 케냐의 인구는 대략 3천 3백만인데 물 공급량은 1천 3백만 명

분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급수 체계는 강과 호수의 지표수, 정부와 국제 자선 단체들이 판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물이 부족하면 농사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갈증과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물 파기 작업은 케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우물 파기 작업이 더욱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믿고 있다. 이 선도적인 실천으로 보다 많은 국제 기구들이 이와 비슷한 공사에 착수해 케냐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야기된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동수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노력이 케냐의 급수 체계를 개선해 지역 주민과 수많은 동물 친구들에게 생명의 감로수를 제공하게 되길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농업 및 식량 공급 문제들이 차츰 해결되어 결국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 신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새너제이 뉴스그룹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의 고귀한 본보기를 따르고 신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려는 소망으로 새너제이 센터는 이웃을 고양시키는 활동에 종종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최근에 시의 미화 사업에 참여할 자원 봉사 팀 모집 공고가 붙었다. 이에 우리는 주민에게 유지비나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개인 주택을 소유한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새너제이’ 활동을 돕기 위해 자원 봉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드디어 새너제이 시 당국에서 2차 대전 퇴역 상이군인인 82세의 볼튼(Bolton) 씨 부부의 정원을 다듬어 달라는 연

락이 왔다.

당국에서 이미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모든 물품을 구매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 작업을 하기만 하면 되었다. 볼튼 씨 댁에 도착해 보니 이미 새너제이 시를 대표해서 제이미 매튜(Jamie Matthews) 씨와 마티 파둔(Marty Pardun) 씨가 나와 있었다. 나중에 볼튼 씨 지역 시의원 사무실에서 나온 직원 한 사람도 우리 작업 팀에 합류했다. 우리는 매튜 씨가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에 있는 모든 집에 정원 조경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초안을 제출하고 통과되도록 협조한 의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새너제이 시 대표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5월 5일과 6일 주말 이틀 동안 일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이런 작업 계획을 숙지하도록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얘기했다.

볼튼 씨의 집은 꽤 오래된 상태였다. 볼튼 부인은 이 집이 자신이 갓난아기 때부터 살았던 집이라고 말했다. 자두 농장의 일부인 이 집터의 유래는 대략 1920년이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했다.

뜰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지만 볼튼 씨 부부 둘 다 너무 연로한 탓에 농장을 계속 돌보고 유지할 형편이 못 되었다. 뜰 한쪽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후추나무가 있어서 뜰을 아름답게 꾸며 주고 있었다.

동수들은 도착하자마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조끼를 입고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재빨리 뜰 한 쪽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무성한 잡초를 뽑고 새로 나무를 심고 짚으로 뿌리를 덮어 주었다. 단 1시간 만에 일을 빠르게 진척시키는 것을 본 매튜 씨가 한 사저에게 “좀 천천히 해요!” 하고 말하자 그 사저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를 처음 보시는 게 확실하군요. 우리는 일을 아주 빨리 하거든요!”

그 뒤로도 꾸준하게 일이 진행되었는데 전혀 힘들이지 않고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 계획에 따라 대략 두 시간 반 정도 일했을 때 시 대표들이 우리의 작업 속도에 놀라워하며 그 시간 동안 우리 15명이 끝낸 일은 보통 50명이 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말하는 게 언뜻 들렸다. 이걸 모두 스승님의 힘이 작용한 덕분이다!

우리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채식 식당에 좋아하는 음식을 몇 가지 주문해서 점심시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처음에 파둔 씨는 채식 음식 맛이 어떨지 몰라 조심스럽게 조금 떼어가 조금씩 맛을 보았다. 그러다 잠시 후 음식 맛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고선 얼굴빛이 확 달라졌다. 나중에 그는 청사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채식 식당이 아주 가까우니 친구들과 직원들을 데리고 식사하러 가 봐야겠다고 말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를 신뢰하게 된 매튜 씨와 파둔 씨는 먼저 떠나면서 우리에게 알아서 나머지 일을 끝내고 가도록 했다. 우리는 곧 일을 마친 후 정원의 나아진 모습을 보라고 볼튼 씨 부부를 불렀다. 그들 모두 기뻐하고 마음에 들어했다. 볼튼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되는 몸이었음에도 바깥에



나와 둘러보며 새로 아름답게 가꾸진 모습을 감상했다. 볼튼 씨 부인은 채식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보고 싶다면 그 곳에서 우리를 만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볼튼 씨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떠나오는 사형 사저들의 마음은 훈훈하고 평화로웠다. 이날은 신의 크나큰 축복을 느끼고 다시 한 번 감사하게 된 날이었다. 지역 사회와 연계해 신과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돕는 기회를 갖게 된 정말 멋진 경험이었다. ★



불운한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날을 보내다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3일 토요일, 로스앤젤레스 센터 동수들은 로스앤젤레스 LAFH(LA Family Housing)의 임시 주거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임시 생활 노숙자 센터인 '커뮤니다드 세사르 차베스(Comunidad Cesar Chavez/ Triangle House)'에 점심 식사를 제공할 기회를 가졌다.

크리스 프리드(Kris Freed) 소장에 따르면, 이 노숙자 보호소는 특히 어린이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각 가족들은 이곳에 최대한 6 달 동안 머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보호소 측은 그들이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우리는 신선한 채소와 채식 단백질, 다른 재료들을 가져와 그 자리에서 직접 거주자들에게 따끈따끈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사형사저들은 볶음밥과 프랑스 빵, 찌개, 음료수 등 맛있는 채식 음식을 100명 정도의 가족들에게 제공했다. 그 중에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날이 마침 일요일 어머니날이라서 우리는 어머니들에게 빨간 장미를 한 송이씩 선물했다. 꽃을 받은 어머니들은 모두 매우 기뻐했다.

보호소 거주자들은 정말 감동했다고 말하면서 스승님의 사랑이 가득 배어 있는 영양 많고 건강에 이로운 채식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우리 협회에 감사했다. 또한 그들은 이 아름다운 날을 기리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



노숙자 보호소에서 어머니날을 경축하다

미국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4일 어머니날은 봄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이었다. 그날 오하이오 동수들은 신시내티 도시에 있는 '드롭 인(Drop Inn)' 노숙자 보호소를 방문해 노숙자 친구들에게 봉사하며 이 특별한 날에 불운한 사람들에게 신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편법 수행자 여섯 명도 우리와 함께 참여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어머니날을 축하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노숙자들이 보호소 앞에서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당도하자 반가이 맞으며 음식과 선물들을 보호소 안으로 날라 주었다. 우리는 대략 천 개의 스프링롤과 먹음직스럽고 푸짐한 볶음밥 일곱 접시, 컨테이너 두 대 분량의 달콤한 오렌지, 초대형 채식 케이크 세 개, 350개의 음료수와 300개의 선물 꾸러미를 가져갔다.

선물 꾸러미에는 치약, 비누, 셔츠, 수건, 간식들이 들어 있었다. 이 밖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많은 노숙자들이 요청했던 초콜릿 바가 특별 선물로 준비되었다. 당시 그들은 초콜릿을 아주 좋아해서 정말 먹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고자 바깥에 우리 협회의 이름과 SM 로고가 찍힌 300개의 특별한 초콜릿 바를 준비하게 되었다.

스승님의 사진과 현수막을 걸고 불찬 CD를 틀어 놓으니 보호소의 분위기가 즐거움으로 가득해졌다. 스승님의 목소리가 보호소를 축복하자마자 기분이 달라지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바로 전날 방편법을 배운 한 사형은 우리 단체에 들어오게 된 것에 매우 행복해했다. 그는 자신도 한때 노숙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곧 보호소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보호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이다. 모두들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차례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보호소에 들어와 채식 음식과 선물을 받아 갔다. 보호소 직원들은 이런 융숭한 접대를 받고 맛있는 음식과 개인용품, 거기에 특별 선물로 커다란 초콜릿 바까지 받아서 노숙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 노숙자는 식사 후에 배를 두드리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행복하다는 표시를 했다.

보호소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대안적인 삶' 전단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동안 전단을 읽었으며 전단을 읽고 나서도 전단을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자기 가방에 챙



겨 넣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번 봉사 활동에 참여한 방편법 동수들은 이런 행사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명상만큼이나 세상을 고양시키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고선 스승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동수들의 수행과 실제 활동을 보면서 스승님의 가르침이 세속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소에서 어머니날을 경축한 행사가 매우 뜻 깊었다고 말했다. 노숙자들은 신의 따뜻한 관심과 훌륭한 음식을 받아서 행복해했으며 우리 또한 어머니날에 불우한 친구들에게 신의 사랑과 작은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어서 기뻐다. ★

텍사스

모두에게 기쁜 스승님 어머니의 날

휴스턴 센터 (원문 영어)

스승님의 생신은 우리가 사랑해 마지않고 더없이 소중하고 자비로우며 고아하신 분을 더욱 기억하고 감사하는 매우 특별한 날이다. 우연찮게도 스승님의 생신은 전세계적으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업적을 기리는 어머니날과 때가 비슷하다. 우리는 입문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이날을 스승님 어머니의 날로 기린다.

휴스턴 센터 동수들은 모두 함께 모여 스승님의 생신과 어머니날을 경축했다. 단체명상을 마친 뒤 스승님의 창작곡집을 들고 스승님의 런던 강연을 시청한 후 맛있는 음식과 후식을 즐기며 즐겁고 멋진 시간을 보냈다. 그러자 저절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축복을 나눠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불우한 이들을 돕고 휴스턴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숙자들을 위한 작은 행사를 계획했다.

우리는 그 다음 주말에 맛있는 채식 서브웨이 샌드위치 275개와 따뜻한 커피, 생수, 과일을 준비하고 ‘대안적인 삶’ 전단과 스승님의 출판물을 같이 넣어 포장했다. 우리는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21일 아침에 휴스턴 시내의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모인다고 알려진 곳에 도착해 평소대로 가판대를 설치하고 스승님의 법상을 걸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노숙자 형제자매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의 방문을 환

영해 주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 또 오셨군요!”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고마워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멋진 날을 선사해 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면 이런 축복을 주신 신께 감사를 돌리라고 했다.

한 특이한 노숙자 형제는 사저 한 명에게 “신은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이에 사저가 “신은 우리의 아버지예요!”라고 대답하자 그는 위안을 얻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답이라고 칭찬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스승님의 책을 읽고 그 속에 담긴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음식을 좀더 원하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이날 행사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휴스턴 센터의 모든 동수들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에 즐거워했다. 휴스턴 센터는 불우한 사람들의 삶에 자그마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을 좋아



하며 스승님으로부터 그 몇 배의 축복을 받고 깊이 감동한다.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 계속되길 바라며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또한 스승님의 인도 속에 우리의 남은 생 동안 가능한 한 모든 방식으로 계속 스승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다. 스승님의 자녀이자 제자인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나누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휴스턴 센터 아이들 모두 스승님께서 기쁜 생신과 멋진 어머니날을 지내시길 기원하는 바이다! ★

포모사

도서 기증 활동으로 신의 고귀한 메시지를 전하다

장화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황금시대 3년(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칭하이 무상사 국제 협회 장화 센터는 장화 시 곳곳에 천국의 메시지가 퍼지기를 바라면서 교도소와 학교에 스승님의 출판물을 기증하는 일련의 활동을 펼쳐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4월 13일, 동수들은 장화 교도소를 방문하여 『즉각 깨닫는 열쇠』 전집과 『삶을 다채롭게』,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무상 주방』 등 총 23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기쁜 마음으로 책을 전달 받은 교도소 측은 신실한 감사를 표하면서 재소자들에게 이 책들을 읽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동수들은 책 속의 고귀한 가르침이 재소자들을 인도해 내면의 지혜를 밝혀 주고 밝은 미래로 이끌어 줄 것으로 굳게 믿었다.

동수들은 장화 시의 다칭 유치원과 장타이 중학교, 핑허 초등학교, 장화 현 수수이 향의 명정 초등학교와 수수이 중학교, 푸싱 향의 시스 초등학교, 위안린 진의 정슈 초등학교를 방문해 『후광이 너무 꼭 끼요』,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 『삶을 다채롭게』 등 스승님의 책과 뉴스잡지를 기증했다. 그 가운데서 정슈 초등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반응은 특히 열광적이었다. 교직원들은 우리 협회에서 앞으로도 많



은 도서를 기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장화 동수들은 5월 중순에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이 학교를 방문했으며 학교 측은 매우 감사하며 책들을 선생님과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 비치했다. ★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일람표 표 1과 2의 합계: 158,479NT (미화 약 4,918.65달러)

표 1: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내 극빈 가정 돕기 지출 명세표

(단위: 대만 NT)

지역	2006년 3월		2006년 4월		부록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타이베이	4	13,000	3	8,000	1
미아오리	2	6,000	2	6,000	2
장화	1	3,000	1	3,000	3
타이난	3	9,000	1	9,000	4
가오슝	1	4,000	—	—	5
타이둥	1	4,000	1	4,000	6
월별 소계	12	NT\$39,000	8	NT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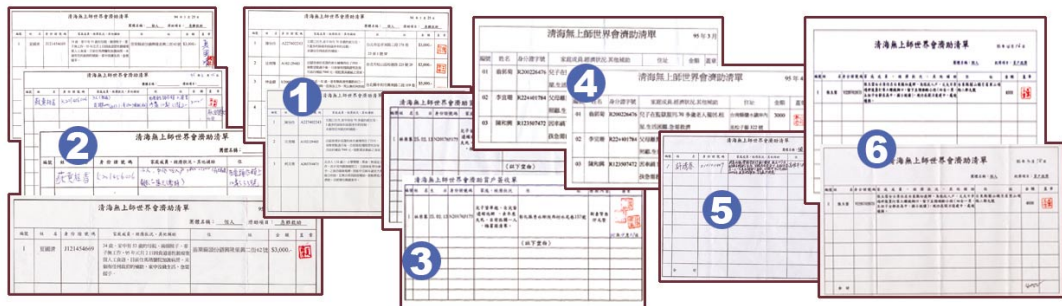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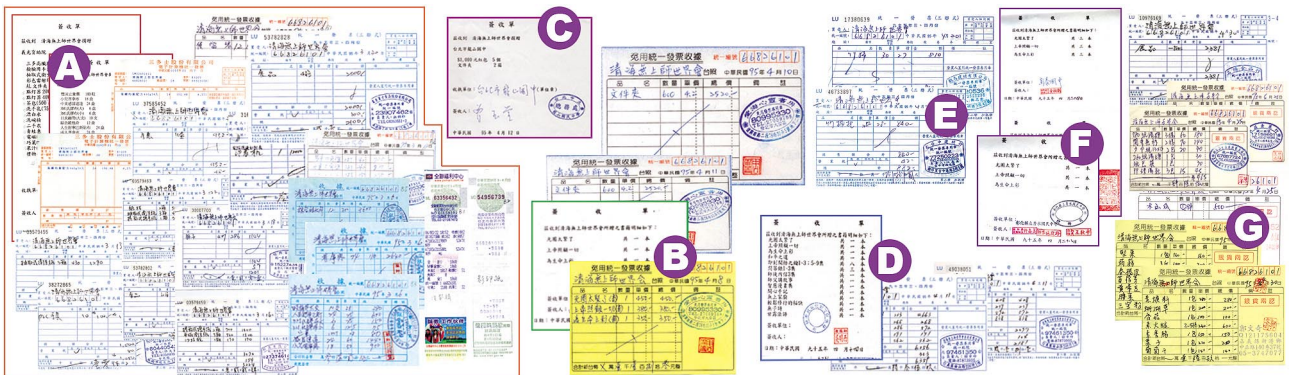


표 2: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명세표

(단위: 대만 NT)

지역	날짜	활동 내역	금액	부록
장화	2006. 3. 22.	장화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6. 3. 22.	타이난 밀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베이	2006. 3. 25.	이광 어린이집과 종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용품 기증.	53,091	A
타이난	2006. 3. 30.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미아오리	2006. 4. 2.	미아오리 현 시후 향공소의 환경 보호 활동 노력에 동참해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활동. (동수 자원 봉사)	0	
장화	2006. 4. 10.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장화 시 다청 유치원에 영적 만화책 기증.	1,180	B
화롄	2006. 4. 10.	화롄 지방법원 검찰 보호소 내 가석방자들을 방문해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베이	2006. 4. 12.	룽산 중학교 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삶' 서류철 전달하고 불우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	10,040	C
장화	2006. 4. 14.	재소자들에게 관심을 전하고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키고자 장화 교도소에 영성 서적 기증.	8,540	D
미아오리	2006. 4. 16.	미아오리 현 시후 향공소를 도와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길이 묻히고 수로가 막힌 28번 국도 청소. (동수 자원 봉사)	1,733	E
타이난	2006. 4. 27.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장화	2006. 4. 28.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장화 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영성 서적 기증.	6,780	F
타이난	2006. 4. 30.	타이난 환경보호국의 활동 지원자 타이난 골든코스트 해변 청소 활동. (동수 자원 봉사)	0	
자이	2006. 4. 30.	자이 척추 부상자 협회 초청으로 심신의 건강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채식 음식 대접, 영성 서적 기증, 무료 명상법 전수.	8,115	G
총계:			NT\$ 89,479	



인도네시아

강진이 발생한 중부 자바에 미친 사랑의 손길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 뉴스그룹



2006년 5월 27일 새벽 5시 54분, 중부 자바 지역에 리히터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 그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요그야카르타(Yogyakarta)의 관할 지역인 반툴(Bantul)과 클라텐(Klaten)이었다. 지역 동수들은 즉시 피해 지역으로 출발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재해 지역에 도착해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은, 중부 자바 중 일주일 전에 ‘대안적인 삶’ 전단 8만 장을 배포한 장소는 신의 은총으로 이번 지진 피해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다. 또한 스승님의 사랑과 보호 덕분에 요그야카르타에 거주하는 동수들도 모두 무사했다.

5월 27일 오후 지진이 발생한 지 몇 시간 뒤 우리는 일부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어 도움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선 서둘러 천막과 의약품, 비스킷, 우유 등의 물자를 구입하고 그날 밤 8시경까지 포장을 마친 후 재난 지역으로 출발했다. 주민에게서 정보를 얻어 우선 반툴 지역의 밤방리푸로(Bambanglipuro) 군 외곽과 판닥(Pandak) 군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은 많은 집들이 붕괴되고 전기도 끊겨서 사망이 칠흑처럼 어두웠다. 또 그 어떤 구호 팀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가 처음이었다.

지역 주민들의 안내로 여러 마을에 구호품을 전달하던 중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들을 발견하고선 서둘러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병원마다 만원을 이루고 있었고 사망이 피투성이였다.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다. 병원에 그들을 두고 나오면서 우리는 의약품 등을 구입해야 할 상황을 대비해 그들에게 돈을 조금 주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으며 한 사람은 사저를 꺼내고 울기까지 했다.



인도네시아 내의 여러 센터들이 요그야카르타 센터에 구호 팀을 파견해 관심과 사랑을 전했다. 우리는 정보 팀, 물류 팀, 분배 팀 등 세 조로 나뉘어 정보 팀은 상황을 분석하고 재해 지역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일을 했고 물류 팀은 정보 팀에서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호 물자를 구입해 포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 팀은 준비된 구호 물자를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5월 28일 오후 우리는 적십자 직원의 안내에 따라 프레렛(Pleret) 지역과 이모기리(Imogiri) 지역으로 향했다. 이 두 지역은 가옥이 거의 90% 이상 붕괴된 상태였는데 피해 상황을 보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퍼붓는 비속에서 식량도 부족하고 전기도 끊긴 채 피난처나 천막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다. 프레렛 지역 내 바우란(Bauran) 마을은 한 채도 남김없이 집이 다 무너졌고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많은 시체들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태인 듯했다. 폭우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천막과 밧줄, 비스킷, 생수, 의료품 등을 나눠 주자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구호품을 받았다.



5월 30일 싱가포르와 포모사 동수들로 구성된 구호 팀이 도착해 요그야카르타, 자카르타, 수라바야, 말랑, 발리 센터의 구호 팀에 합류했다. 우리는 스승님과 희생자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다 같이 힘을 모아 구호 활동을 펼쳤다.

구호 작업을 하는 동안 감동적인 상황을 많이 겪기도 했다. 6월 3일 도카란(Dokaran) 마을과 글라가로(Glagah Lor) 마을에 갔을 때는 남녀노소가 다 같이 모여 ‘대안적인 삶’ 전단을 나눠 줄 때 함께 준 스승님의 홍보 책자 겉장에 인쇄된 글을 기쁘게 소리 내어 읽고 있었다. “칭하이 무상사. 지금 지상에서 천국을 체험하라.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빛과 소리의 명상법!”



다른 곳에서는 몇몇 아이 엄마들이 우리의 방문에서 스승님의 사랑을 느낀 모양인지 우리가 떠날 때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두 곳에서는 주민들이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구호품을 나눠 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수차례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그때마다 “스승님께 감사드리세요.”라고 말해 주곤 했는데 놀랍게도 몇몇 주민들은 정말 스승님의 법상 앞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우리가 나눠 준 스승님의 사진을 본 많은 주민들이 스승님이 아름다우시다고 말했다. 한 노인은 스승님이 예사 분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승님의 위대함을 알아본 그는 요그야카르타 센터의 위치에 대해서도 물어 봤다.

현재까지 우리는 천막, 밧줄, 손전등, 일용품, 방풍 램프, 비스킷, 육아용 분유와 음식, 라면, 생수, 식용유, 담요, 약품 등 많은 구호품을 요그야카르타 반톨 지역 내 17개 재해 지역의 60여 곳에 전달했다. 이 밖에 포모사에서 온 동수 의료 팀은 수백 명의 부상자들을 돌봐 주었다. ★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잡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난 속에 국제적 형제애의 정신이 형성되다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타 뉴스그룹 (원문 인도네시아어)



5월 27일 인도네시아에 리히터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지는 자바 섬 남해안 근처로 고대 도시인 요그야카르타에서 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 진앙지와 요그야카르타 사이에 위치한 반툴(Bantul) 지역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어 이곳의 진료소 26곳 중 16곳이 파괴되었다. 그 결과 재난 후 보건 업무가 가장 급박한 일이 되었다. (주 1)

이번 지진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현재 20여 국가에서 지원의 손길을 보내왔는데, 특히 미군은 첨단 의료 구호 장비와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 그리고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구호품을 제공했다. 괌(Guam)에서 온 공군부대     는 미국 해군 병원선인 'USNS 머시호(USNS Mercy)'    와 미 해군 강습상륙함(USS Essex),    , 오키나와(Okinawa)에 주둔 중이었던 미국 제3 해병 원정군(Third Marine Expeditionary Force)     등 각 해군 부대와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을 도왔다. USNS 머시 팀은 원래 올해 2월 2일 산사태로 황폐화된 필리핀 줄로(Jolo) 지역에서 의료 봉사 활동과 재건 활동을 돕고 있었다. (주 2)

미국 의료 구호 팀은 인도네시아 반툴 지역의 파카(Pacar) 축구 경기장을 기지로 삼아 의료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제3 해병 원정군 소속 100여 명의 대원들은 기지에 이동 병원을 설치했다. 이 안에 외상 센터, 제약실, 이동 수술실이 만들어졌다. 도착한 지 며칠 만에 해군 소속 군의관들은 수백 명을 치료했고 술한 인명을 구해 냈다. (주 3)

6월 5일 요그야카르타 센터 동수들이 이동 병원을 방문하자 미 해병대 의료 팀의 대변인인 에릭 타우쉬(Eric Tausch) 중위가 맞이해 주었다. 타우쉬 중



위는 자신의 팀이 2004년에 쓰나미 재난이 일어난 후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태국 국민들을 도왔으며 2005년 파키스탄 지진 재해 당시에도 봉사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모두 친구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병원에는 국제적인 형제애의 정신이 가득 퍼져 있었고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호주인, 미국인으로 이루어진 의료 팀이 지역 군대와 협조해 이재민들에게 최상의 봉사를 한다는 공동 목표를 성취하고자 활동하고 있었다. (주 4)

이들은 파카 경기장에 이동 병원을 설치하는 외에 이동 의료 팀도 조직했다. 이 대원들의 임무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경기장에 데려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그 가족들은 경기장 내 캠프에 머물 수 있게 되어 있다. 타우쉬 중위는 지역 동수들을 데리고 다니며 병원 시설을 간단히 보여 주었다. 우리는 외과 수술 천막에서 중상을 입은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의사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시설물을 다 둘러본 후 타우쉬 중위는 동수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한 아버지가 불에 타서 무너지는 집에 뛰어들어가 자식을 구하고 생명을 잃은 얘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타우쉬 중위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들이 곤경에 처해서도 매우 예의바르고 참을성이 많으며 심지어는 치료를 받을 때도 애써 미소를 지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동수들은 지진 이재민들을 돕는 타우쉬 중위와 그 의료 팀의 애정 어린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에 그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해 동수들에게 다시 한 번 감동을 주었다. 동수들은 감사의 표시로 타우쉬 중위에게 스승님의 작은 사진을 주었고 그는 매우 고마워하며 받아 들었다. ☆

주 1: <http://www.reliefweb.int/rw/RWB.NSF/db900SID/LTIO-6QFQMQ?OpenDocument>

주 2: <http://usinfo.state.gov/usinfo/Archive/2006/May/29-938293.html>

주 3: <http://www.pacom.mil/articles/articles2006/060531story1.shtml>

주 4: <http://www.signonsandiego.com/news/world/20060601-0438-indonesia-earthquake.html>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 **베냉:** 센터/ 229-21-383982/ smbenin@yahoo.fr
-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kinafaso@yahoo.fr
-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 **가나:** 센터/ 233-277607-528/ smghanac@yahoo.com
- ★ **케냐:** 센터/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hidahraza@yahoo.fr
-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l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emzinikababa@yahoo.com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emazima@yahoo.com

■ 아메리카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25@yahoo.com.ar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32234424, 55-91-3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레시페/ Ms. Monica Tereza Nogueira/ 55-81-8742-3431, 55-81-3304-045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튼/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튼/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2002@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b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i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티아고/ Mrs. Millaray Lizana Lizana/ 56-2-4544278/ millaraynoemi@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Barrientos/ 56-2-3147786/ jackybarrientos@gmail.com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Ms. Sonia Valenzuela/ 1-928-317-8535/ valenzuela_sonia@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18104-16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ione2@yahoo.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1-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yahoo.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 centro@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lrujillo@hotmail.com

★ 미국:

* **앨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앨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67/ bodedj@cox.net

*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Ms. Frances Lozano/ 1-559-322-9793/ estudios62301@yahoo.com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s. Chiem, Mai Le/ 1-714-924-5327/ smwi31@yahoo.com

세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gmail.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새너제이/ Ms. Sophie Lapalre/ 1-650-464-8066/ Margorifico@yahoo.com

새너제이/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sl2k4@gmail.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l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 플로리다: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 조지아: Mr. Roddell Pleasants/ 1-678-429-7958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lict@hotmail.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intz/ 1-317-842-8119/ josiepoeb@sbcglobal.net

* 켄터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l.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l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842-0262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클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8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 뉴저지: Mr. Hero Zhou/ 1-617-794-8282/ yb_zhou@hotmail.com

* 뉴저지: Ms. Lynn McGee/ 1-513-377-2375/ lynn.mcgee@yahoo.com

* 뉴저지: Ms. Bozena Chetnik/ 1-732-986-2907/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크하이오: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 오크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ldawu@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_mecha@comcast.net

달라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uan@houston.rr.com

샌안토니오/ Mr. Khol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iem_le23502@yahoo.com

버지니아비치/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o@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snald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h.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Gin/ 886-37-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l/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i.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l.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s.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l.wartono@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l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요가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62-274-411-701/ tadianlingtyas@lycos.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yadari@freeuk.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h.biglobe.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l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nr1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조영원/ 011-9670-5839/ seoulyoungwon@yahoo.co.kr

부산/ 센터/ 051-334-9205/ chinghaibusan@hanmail.net

부산/ 송호준/ 051-903-4552/ 011-599-4552

부산/ 황상원/ 051-805-728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53-633-3346

대구/ 한선희/ 053-746-5338

대구/ 차재현/ 053-856-3849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ejeon@yahoo.co.kr

대전/ 도봉희/ 042-471-0763/ dbhs44463@yahoo.co.kr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신현창/ 063-254-5824

광주/ 센터/ 062-525-7607

광주/ 조경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lightundinche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244-1250

안동/ 김삼태/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청옥/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bophet@yahoo.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532231/ mcdi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쿠알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lsmch@yahoo.com

쿠알라룸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streamyx.com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ikss@mptmail.net.mm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ence Fernando/ 94-11-2412115/ samantha_nbl@zeynet.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o8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lad@stou.ac.th

차양마이/ Ms. Siriwan Supatramnlan/ 66-50-332136/ siriwanly@gmail.com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i@gmx.at

비엔나/ Mr. Nguyen Van Dinh/ 43-2955-70535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star@inet.hr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센터/ 358-50-596-2315/ helsinkicenter@yahoo.com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Mr. Grigoril Guinzbourg/ 49-30-5498-6147/ Grigoril.Guinzbourg@gmx.de

베를린/ Ms. Thi Hoa Hoang/ 49-30-3083-4712/ Pureocean@web.de

뒤스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원렌/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원렌/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8@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 kamlung27@hot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Lehel Csaba/ 36-20-2400-259/ clehel@gmail.com

부다페스트/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 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gingai@wp.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s. Leera Gareyeva/ 7-095-732-08-32/ moscowcenter@rambler.ru

★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 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le@yahoo.es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01778/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앵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l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rsula_klein@bluewin.ch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임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pnl@matters19.freemove.co.uk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weller4@ntlworld.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에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liss/ 61-7-3901-6235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캔버라/ Mr. Hoang Khanh/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ert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rn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시드니/ Mrs. Kathy Divine/ 61-2-9891-5609/ universalove22@yahoo.com.au

태즈메이니아/ Mr. Raymond Dixon/ 61-3-62314420/ ray_jule@bigpond.net.au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34/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i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온라인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불멸의 시를 통해 드러난 일대기

글: 벨 그림자

최근 몇 년간 청하이 무상사의 자서전을 출판해 달라는 신실한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스승님께서서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상 스승님의 시집은 스승님의 반평생이 담긴 전기나 다름없다. 이 시들은 직접적인 정보를 준다는 점을 떠나 위인들의 전기에 흔히 보이는 과장된 찬사나 포장의 흔적 하나 없이 진실한 느낌만을 가득 담고 있다.

스승님은 일곱 살의 나이에 처음 시를 쓰셨을 때 펜 하나가 당신의 여러 단계에 걸친 삶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리란 것을 어렵듯이 알고 계셨던 것 같다. 그러나 때론 낭만적이기도 하고 때론 슬프기도 한 이 시들이 언젠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되리란 것은 아마 모르셨을 것이다.

이 시인의 펜은 충실하다. 스승님 내면의 벽찬 사랑과 고통에 대해 충실하다. 시의 세계란 순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스승님은 억누르려고도 한 단계 걸려 표현하려고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사적인 체험과 느낌을 대중들이 음미하게 드러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용기는 사랑에서 비롯될 것이기 때문에 스승님께서 당신의 시집을 발간하도록 자비롭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 시들은 우리가 성인의 드넓은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주며, 사랑을 찾지 못했을 때 쏟아냈던 한숨을 듣게 해주며, 진정한 사랑을 찾았을 때 느꼈던 기쁨에 동조하게 해준다.

위대한 한 영혼이 마침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눈부신 영성의 무지개를 펼쳐내는 것을 보면서 독자는 지면(紙面)에 드러난 시의 색채 안에서 그들 자신의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한 마음이 된다.

신성한 사랑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있어 스승님의 시는 『천로역정』(존 버니언의 책)이자 『파우스트』로서 인류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불의로 가득한 삶 속에서 위안이 되어 줄 참 사랑을 갈망하고 그러면서도 세속에 묶여 그 사랑을 놓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스승님의 시는 어울락 음악인들과 외국 음악인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아 스승님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술한 노래들이 인기를 얻었다.
(주 1) 이러한 시들은 사랑과 슬픔 같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스승님의 시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행간의 오묘한 전개와 그 뒤에 깔려 있는 무한한 사랑이다. 세세생생의 수행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한 이 사랑은 스승님의 시에 순수하고 가식 없는 독특한 매력과 더불어 영적인 힘도 부여해 주므로 시를 읽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연스레 삶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일체의 부정적인 사념들을 지우게 된다.

전쟁을 겪었던 시인의 유년기가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시집 『조약돌과 황금(Pebbles and Gold)』에는 스



승님이 아버지, 어머니, 언니, 하인, 이웃 등에게 써 주신 초기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스승님의 모국은 전쟁이 한창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린 시인은 술한 의문에 대한 신의 응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종이 위에 송두리째 쏟아 부어야 했다.

스승님은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이 상당히 민감하였고 불의를 바로잡는 비범한 능력이 있었다. 이 시인은 고통스런 세상에서 살면서도 인류 사이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축복의 밭'을 열심히 일구었다. 또한 『조약돌과 황금』에는 어린 소녀가 갖는 낭만에 대한 갈망과 첫사랑의 달콤함도 묘사되어 있다.

『잃어버린 추억(The Lost Memories)』은 시인의 성장기에 있었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스승님은 자신의 숨겨진 동경, 이성간의 애정,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의 도취감과 사랑이 끝났을 때의 슬픔에 대해 화려한 필치로 쓰면서 인류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자질의 하나인 낭만적인 사랑의 힘을 높이 평가하고 노래한다. 그러나 이 시들을 읽은 뒤 몸을 뉘이고 안도의 숨을 내쉴 때면 그 행간에 담긴 메시지를 알아차리게 된다. 바로 낭만적인 사랑이란 그저 우주적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며 전주곡일 뿐이라는 것이다! 상실감을 체험한 뒤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면 인생의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

한 이방인, 이 낮선 천지에서
황혼 속을 거닐며 바람이 여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네.
서쪽 태양은 이제 사그라질 듯, 비는 그저 부드럽게만 날리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던 그날처럼.

소리쳐 외치고 온 우주를 경축하리라.
춤추고 노래하며 온 세상과 하나 되리라.
언덕 꼭대기에 황금 불을 밝히려라.
다가올 겨울 하늘이 따뜻하게 데워지도록...

~『잃어버린 추억』
『사랑의 멜로디 1』 중에서

한편 『전생의 발자취(Traces of Previous Lives)』는 시인의 조국인 어울락이 전쟁에 신음하던 20세기 슬픈 역사의 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다. 이 시들은 20세기 후반 50년 동안의 대격변을 축소해 보여 주는 거울과 같다. 스승님은 '사랑'을 시집의 1부에, '전쟁'을 2부에 실었는데, 이는 사랑과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염원을 상징한다. 스승님은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을 직접 낭송하기도 하셨는데, 나중에 CD로 제작되었다. (주 2) 이렇게 해서 이런 섬세한 예술이 없어지던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던 시점에 어울락의 예술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스승님의 노력으로 이런 예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스승님의 삶은 매우 다채로우며 심지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시인의 마음은 매우 부드럽고 민감하다. 그래서 스승님의 사고와 감성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스승님은 그 다음에 발표하신 시집을 『나비의 꿈(The Dream of a Butterfly)』이라 명명하고 고매한 '장자'의 세계를 당신 특유의 낭

만적인 문체로 새로 창조하셨다. 독자들이 이 시들을 읽고 윤희의 틀에서 문득 깨어나 일장춘몽과 같은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크나큰 축복일 것이다.

이 시집에서 시인은 화려한 비단과도 같은 시들을 선사하면서도 누에가 고치 속에 갇혀 있을 때의 답답함은 바로 건너뛴다. 애벌레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나비의 아름다운 춤을 그대로 즐기게 해주는 것이다. 마치 조가비가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매끄럽고 빛나는 진주를 빚어내기 위해 모래를 문지르는 고통을 감내하듯이 이 시인은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이 기나긴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 주고 위로해 줄 시를 짓는다. 예술과 재능으로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깨달은 스승은 비범한 외적 아름다움과 지고한 내적 깨달음을 동시에 갖추고 있을 게 분명하다.

고성(古城)은 고개 속여
 낮선 이를 반기는데,
 왕실 마차에서 날리는 뽀얀 먼지에
 눈물이 맺히네!
 역사는 몽상에나 나올 법한 전설로 가득한데,
 그들은 지금 어디 가고
 빛바랜 잔향(殘香)만 남았구나!
 돌아와 나 눈물 맛을 보았네.
 허망한 신기루에 대한 슬픔으로.
 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함이 없건만.
 ...
 해묵은 쓸쓸한 돌길 위에 남겨진
 늙고 우울한 조약돌들...
 수풀은 지난날의 아름다운 그 자태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그 옛날 맑고 투명한 호수 위에
 시타르 소리 울려 퍼지는 고성.
 현을 타는 왕비의 섬세한 손놀림에
 정적 속엔 백단향만 그윽하다.
 아, 옛 왕이여!
 그대 분명 황홀경에 잠겼으리라!...

~「나비의 꿈」 ‘삼의 왕궁에서’ 중에서

인생의 슬한 세파를 겪은 뒤 시인의 펜은 더욱 성숙해지고 다듬어졌다. 『그 옛날(The Old Times)』에서 시인의 자유로운 상념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 시집에서 독자들은 시인이 모든 인종을 대변해 신과 나누는 깊은 대화를 경청할 수 있다. 시인은 신께 간청하기



도 하고 신의 책임을 묻는 등 보통 사람들이 감히 말 못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말한다. 스승으로 알려진 지 수년이 지났지만 시인은 명리의 뒷에 갇히지 않았으며 대중의 찬탄과 존경에도 함락되지 않은 채 오히려 계속 고양되었다. 인생의 강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자각도 더욱 깊어졌고 인간의 환상과 같은 꿈에 대해 들을수록 더욱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자시(無子詩)』는 깨달음을 찾아다니던 초창기 시인의 발자취를 담고 있다. 그녀는 미얀마의 큰 불상 앞에서 삶의 참 뜻에 대해 묵상했고 파리에서는 한 선원(禪院)에서 명상하며 속세를 잊었다. 스승님은 낭만적인 사랑과 수행의 길 사이에서 느꼈던 선택의 갈등을 썼으며 인도 히말라야에서 안거하고 신과 하나 되는 체험을 맛보았던 경이로운 기쁨에 대해서도 묘사하셨다.

여기 계셨군요, 내 평생 소망했던 응답이시여.
당신의 눈에 온통 사랑과 자비의 바다뿐.
당신을 온통 감싸고 있는 신성하고 찬란한 빛은
길 잃은 영혼들을 근원으로 인도합니다.

...

아직도 미망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어찌 내가
이런 기적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수행했기에
이렇게 지고의 깨달음을 얻은 존엄하신 분 곁에 있게 되었을까요!

~『무자시』 ‘성스러운 큰스승’ 중에서

『침묵의 눈물(Silent Tears)』에는 스승님이 처음으로 영적 스승이 되었을 때 쓰셨던 시들이 담겨 있다. 시구마다 히말라야의 신성한 빛을 발하고 있는 이 시들은 사제지간의 내적 관계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신성하고 거룩한 이 관계는 부자간이나 연인간의 관계보다 더 깊은 것이다. 유머가 가득 담긴 일부 시들은 수행자들이 외롭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 곳곳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한다.

스승님의 시를 모두 읽고 나면 마치 시인과 술한 세월을 함께 겪어 온 듯해진다. 인생이 무대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많지만 인생의 흥수를 겪고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이는 거의 없다. 아마도 스승님은 고금을 통틀어 인생의 맛을 철저히 즐기면서도 사탄의 유혹에 의연하고 협소한 낭만적 사랑을 드넓은 우주적 사랑으로 바꾸어 세상 사람들을 보다 높은 경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일 것이다. ★

주 1: 팜 듀이(Pham Duy), 푸옹 부(Phuong Vu), 르 딘(Le Dinh), 르 부(Le Vu), 닛 응엔(Nhat Ngan), 투 호(Thu Ho), 트란 콕(Tran Quang Loc), 응우옌 반 티(Nguyen Van Ty), 타이 호아(Thai Hoa) 등 많은 유명 예술락 음악인들이 스승님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발표했다. 에미상 수상자인 프레드 칼린(Fred Karlin) 또한 스승님의 시를 바탕으로 한 곡과 노래를 지어 1998년 캘리포니아 쉬라인 강당에서 열린 자선 음악회 ‘평화의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One World of Peace—through Music)’에서 공연한 바 있다.

주 2: 스승님이 낭송하신 시들은 ‘전생의 발자취’, ‘한밤의 꿈’, ‘어찌하랴!’, ‘시공을 초월하여’ 등 모두 12개의 CD로 녹음 제작되었다. 이 낭송 시들은 7권의 시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심오한 시구에 담긴 성자(聖者) 시인의 광대무변한 마음-

칭하이 무상사 최신 개정판 시집



긴 안거 끝에 사랑하는 스승님은 특별히 귀중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모든 시를 직접 교정보시고 새로운 개정판을 인쇄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스승님은 인류의 영성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영성의 향기가 물씬 배어 있는 장엄한 시적 세계를 비롯한 예술 창작품을 통해 진선미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 이 시인의 가슴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기만 하며 그 불멸의 시는 무수한 중생들의 마음과 영혼을 길러낼 뿐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스승님의 개정판 시집을 꼼꼼히 감상해 보면 시구 하나하나에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한한 힘이 뿜어져 나와 독자들을 한 차원 높은 경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모두들 신이 주신 이 영혼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길 바라는 마음이다.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http://www.theCelestialShop.com>을 방문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포모사 내 주문 시)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kr/> (한국어),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스승님의 최신 그림



데이지는 노랗다



천국의 선물

위 그림들은 스승님이 최근 그리신 작품 중 일부로서 현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